

毛詩序著者考

金時俊

目次

- | | |
|---------------|--------------|
| 一. 序論 | 3. 毛詩序와 三家詩序 |
| 二. 歷代毛詩序著者說演變 | 4. 歷代毛詩序著者諸說 |
| 1. 毛詩 | 三. 結論 |
| 2. 毛公·毛亨·毛茛 | |

一. 序論

詩經三百十一篇은 周初(B.C. 1122)부터 春秋中期(B.C. 570)까지의 約五百餘年間에 이루 어진 詩¹⁾를 輯集한 中國古代의 詩歌集이며 中國最古의 文學作品集이다. 그러나 文學作品集이라는 表現은 어디까지나 現代 學者들의 表現이지 清代以前까지만 하여도 결코 이런 表現은 使用되지 않았다. 그것은 先秦 經典中の 하나로 神聖視되어 傳來되었고 그의 注解는 禮教의 基本思想下에 이루어져 왔다.

詩經은 別稱 毛詩라고도 한다. 詩經은 他經典과 더불어 秦火로 散佚되었다가 西漢初에 齊·魯·韓의 三家詩와 稍後에 毛詩가 出現하였다. 그러나 三家詩는 東漢末以後漸次 亡佚되고 毛詩만이 現今까지 傳來되어 毛詩는 마치 詩經의 代名詞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現存의 毛詩는 先秦代에 輯集된 詩經의 原文을 傳하기만한 것이 아니고 毛公이 註解한 詁訓傳이 있고 또 東漢末의 鄭玄의 箋이 있으며 또 詩經 每篇의 首端에 題解한 詩序가 있다. 따라서 現存의 毛詩를 正確하게 말한다면 詩毛傳鄭箒이라고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詩經研究에 있어 最初로 逢着하는 것이 詩每篇의 首端에 있는 詩序이다. 이 詩序는 讀者들이 詩를 鑑賞하고 理解하는 先導的 役割을 하고 있다. 即 詩序의 首句에는 거이 「……를 讀美한 것이다」라든가 또는 「……를 諷刺한 것이다」라고 시작되고 있다. 고로 詩經의 讀者는 詩序에 依하여 先入見을 깊이고 詩經을 鑑賞하게 된다. 그런데 詩序와 詩의 內容을 對照·詳考하여 보면 詩의 本意와 詩序가 대부분이 相違離을 發見하게 되고 따라서 詩序에 대한 疑問이 發生하게 된다. 이러한 疑問은 唐代에서 부터 몇몇 學者에 依하여 萌芽되더니

1) 劉大杰의 中國文學發展史, 第二章, 周詩發展的趨勢參照

高亨의 詩經引論에는 詩經의 著作時代를 B.C. 1066~B.C. 541前後라고 한다.

宋代에 와서는 詩經學界의 最大的 爭點이 되어 그 論爭이 極에 到達한 感이 있다. 이에 따라 詩序의 著者가 어느 時代의 누구이며 왜 이렇듯 詩經을 歪曲시켰는가 하는 問題가 擡頭된다. 宋代 鄭樵는 詩序의 著者를 심지어 「村野妄人作」이라고 酷毒하게 批難하였고 朱熹는 詩經集傳을 세 차례나 改書하다가 종당에는 詩序를 詩經에서 削除하는 勇斷까지 내렸다. 그러나 한편으로 詩序擁護派 學者들은 詩는 直敘가 아닌 隱喻이므로 詩의 本事를 모르고는 詩의 解釋이 成立될 수 없다고 對立하고 있다. 그런데 詩序의 無價值論을 主張하면서도 詩經을 儒家經典의 하나로 看做하고 禮教的基本思想下에서 註解하고 있는 學者들이 있다. 이들은 비록 詩序를 屢하기는 하였으나 詩序의 基本思想인 儒家의 禮教와 政教思想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詩序를 踏襲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만다. 고로 詩經을 儒家經典이 아닌 古典籍으로 看做하고 歷史的 觀點으로 討究하려는 清代의 一部學者들 조차도 詩經을 古代文學作品으로 看做하고 文學的 觀念으로 討究하려는 現代 學者들에 의해 그들도 詩序의 範圍에서 逸脫하지 못하고 있다는 批判을 免치 못하고 있다.

詩序의 論爭은 唐代以後·宋·明·清代를 거쳐 現今에 까지 이어져 왔고 또 詩經學에 그 만큼 影響을 미치고 있다.

本稿에서는 歷代 諸學者들의 詩序에 對한 見解를 考察하고 毛詩序의 著者가 어느 時代 누구이며 어떤 意圖下에 著述하였는가를 考究한다.

二. 歷代毛詩序著者說演變

詩經의 傳來에 대하여 漢書藝文志에 다음과 같이 記述되어 있다.

詩經二十八卷，魯，齊，韓三家。

漢興：魯申公爲詩訓故，而齊轅固，燕韓生，皆爲之傳。或取春秋，采雜說，咸非其本義。與不得已；魯最爲近之。三家皆列於學官。又有毛公之學，自謂子夏所傳；而河間獻王好之，未得立。

詩經은 漢代初에 魯의 申培，齊의 轅固，燕의 韓嬰， 세 사람에 의하여 各己 傳授되었으며 이三家의 詩는 學官에 列立되었고，또 후에 子夏로부터 傳授되었다고 自稱하는 毛公의 詩경이 나왔는데 河間獻王이 그것을 好學 하였으나 學官에는 列立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詩경이 戰國末의 浩劫을 거쳐 누구에 의해 그들三家에게 傳授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記錄이 없다. 다만 毛詩에만 「自謂子夏所傳」이라고 하였으나 漢書를 撰述한 班固조차도 客觀的으로 믿을 수 없다는 語彙로 記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詩경의 傳來는 이미 前漢代조차도 不分明했던 것 같다.

隋書經籍志에는 漢代以後 詩경의 傳來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漢初有魯人申公，受詩於浮丘伯，作詁訓，是爲魯詩。齊人轅固生亦傳詩，是爲齊詩。燕人韓嬰亦傳詩，是爲韓詩。終於後漢，三家並立。漢初又有趙人毛震善詩，自云子夏所傳，作詁訓傳，是爲毛詩古學，而

未得立 後漢有九江謝曼卿，善毛詩，又爲之訓。東海衛敬仲，受學於曼卿，先儒相承謂之毛詩序，子夏所創，毛公及敬仲又加潤益。鄭衆，賈逵，馬融並作毛詩傳，鄭玄作毛詩箋。齊詩魏代已亡之，魯詩亡於西晉。韓詩雖存，無傳之者。唯毛詩鄭箋至今獨立。

唐代 魏徵等이 撰한 隋書經藉志가 漢代의 班固가 撰한 前漢書보다 더 詳細하게 記述되어 있다. 즉 魯人 申公은 浮丘伯에게서 詩를 傳授받았다고 하였고 또 毛公은 趙人 毛萇이라고 했다. 毛詩는 後漢代에 와서 謝曼卿이 이어받고 또 衛敬仲이 그것을 傳授받았다고 했다. 그 밖에 鄭衆·賈逵·馬融等이 모두 毛詩傳을 짓고 鄭玄이 毛詩箋을 지었다고 했다. 그리고 三家詩중 齊詩는 魏代에, 魯詩는 西晉代에 亡佚되고 韓詩가 殘存하고 있으나 傳授하는 사람이 없으며 毛詩鄭箋만이 當世에 詩經을 代表하고 있다 하였다.

이러한 記述로 보아 隋代에 이미 三家詩는 完全히 消滅되었거나 거이 消滅되고 毛詩만이 行世하였음을 알 수 있다. 清代에 이르러 여러 學者들이 漢代의 典藉에 引用된 三家詩를 抽出하여 그것들의 殘缺本을 만들어 現今에는 三家詩의 面貌를 瞰知할 수 있게 되었다.

1. 毛 詩

前漢代에 學官에까지 列立되고 盛行하였던 三家詩가 後漢代에 와서 衰退하기 시작하고 學官에도 列立되지 못하였던 毛詩가 後世에 獨行한 理由는 무엇이었을까? 鄭樵(漁仲 1104 ~1160)는 詩辨妄에서 다음과 같이 論했다.

齊魯燕趙四詩，土音不同，訓詁亦異。故孔頤達曰：「三家之詩，字與毛詩異者，動以百數。」及證之他書，三家之學，非徒字異，亦併與文義俱異矣。當武帝時毛詩始出，自以源流出於子夏。其書貫穿先秦古書。惟河間獻王好古，博見異書，深知其精。時齊魯韓三家皆列於學官，獨毛詩不得立。中興後，謝曼卿、衛宏、賈逵、馬融、鄭衆、康成之徒，皆宗毛詩，學者翕然稱之。

齊·魯·韓·毛 四家詩는 그 字音이나 訓詁가 각기 다르며 三家詩는 漢初에 이미 學官에 列立되었으나 毛詩만은 漢武帝때에 뒤늦게 出現되어 學官에 列立되지 못했다. 河間獻王이 他書와 比較하여 보고는 그것이 더 精美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後漢 때 부터 學者들이 毛詩를 學習하고는 모두 그의 출통함을 칭찬했다고 했다. 그러나 三家詩를 尊重하는 清·魏源(默深, 1794~1856)은 詩古微에서 毛詩보다는 三家詩가 더 優秀하다고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齊詩先采蘋而後草蟲，與儀禮合。小雅四始五際次第，與樂章合。魯詩說碩人，二子乘舟，載馳，黃鳥，與左氏合。說抑及昊天有成命，與國語合一。說驕虞，樂官備與射義合。說凱風，小弁，與孟子合。其不合諸書者安在？在而毛詩則動與牴牾，其合諸書又安在？

魏源은 齊詩와 魯詩중 數篇을 例擧하고는 이것들이 先秦古藉인 儀禮, 樂記, 左傳, 國語, 孟子等 諸書와 全附合되나 毛詩는 附合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鄭樵의 「其書貫穿先秦古

書」라고 한 것을 反駁한 것 같으나 實은 毛詩가 先秦古籍에 附會한 것이 尤甚하다.

謝无量은 詩經研究 第一章 詩經總論에서 毛詩가 獨傳하게 된 理由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至於毛詩所以獨傳的緣故。我看有以下三種理由。(一)三家詩傳世已久，人情厭故喜新，毛詩新出，故能風行一時。(二)鄭君當時大儒，聲望甚著，獨爲毛詩作箋，故學者群起附和。(三)西漢博士習氣最壞，三家詩久立學官，多被牽入緯書雜說，毛詩獨較純正，傳箋又復平實簡要，易於傳習。

上記한 바와 같이 謝无量은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三家詩가 傳世한지 오래되어 사람들이 「厭故喜新」하기 때문에 새로나온 毛詩에 興味를 갖고 이것만 愛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論理는 옳지 못한 것 같다. 대수롭지 않은 說이라도 새로운 說이 나오면 모든 學者들이 그것을 버리고 새것에만 集中하였다는 說은妥當치 못하다. 두번째로는 當世의 著名한 大儒인 鄭玄이 毛詩의 箋을 지었으므로 모든 學者들이 附和했다는 것인데 事實 鄭玄은 처음 韓詩를 공부하였다가 후에 毛詩가 더 났다고 생각되어 毛詩의 箋을 지었을 것이다. 이 項도 首肯이 가지 않는다. 세번째로는 西漢時代, 學官의 博士들의 벼름이 고약하여 三家詩에 緯書나 雜說을 附合시켜 難解하게 만들었으나 毛詩만은 비교적 純正하고 또 傳箋이 平實하고 簡易하여 學習하기 容易하였기 때문에 獨傳되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項에 對하여는 後述하기로 한다.

생각하건데 毛詩가 獨傳한 理由는 毛詩가 三家詩에 比하여 儒家의 傳統思想에 가장 附合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漢代는 비록 儒家思想을 根幹으로 國家觀을 確立시켰으나 오랜 太平盛世로 陰陽思想이 크게 驟滿되었다. 따라서 前漢末에는 「織緯之學」이 盛行하여 謝无量이 上述한 바와 같이 學官에 列立된 三家詩에 조차 緯書와 雜說이 浸入되었다. 詩經뿐만 아니라 經書를 모두 織緯說로 解釋하는 風潮가 盛行하였다. 이무렵에 發生한 것이 古文 經書의 出現事件이다. 古文 經書는 漢武帝末에 孔子의 舊宅에서 「春秋左傳」, 「尚書」, 「禮記」, 「論語」, 「孝經」等 數十篇이 發見된 것이다.²⁾ 이것들은 모두가 當世에 使用하던 今文, 즉 篆書가 아닌 古文 즉 科斗文字로 되어 있었다. 皇帝는 이것들을 모아 劉向等에게 校閱을 命하였다. 후에 劉向이 죽고 아들 劉歆이 先父에 이어 校閱하였다. 劉歆은 漢武帝 때 河間獻王에 의하여 世上에 出現된 毛詩를 古文에 包含시켜 學官에 古文博士를 列立할 것을 皇帝에게 奏上했으나 今文家들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詩經의 四家詩는 秦火以後 모두가 口傳되어 온것을 記述한 것임으로 文字上의 異同은 多少 있을뿐 今文이니 古文이니 하는 區分은 없었다.³⁾ 다만 毛詩가 古文 經이 나을 무렵에 出現된 것이라고 하여 古文家들이 그것에 包含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古文 經은 漢代에는 빛을 보지 못하고 今文 經만이 行世하던 時代였으므로 毛詩 또한 같은 運命에 놓이게 된 것이다.

2) 漢書藝文志·「武帝末，魯共王壞孔子宅，欲以廣其宮，而得古文尚書及禮記論語孝經，皆古字也。」

3) 林尹著 中國學術思想大綱 六藝篇參照

이미 上述한 바와 같이 漢代의 學術思想이 儒家思想을 根幹으로 하고 있으면서 織緯說이混入되어 本來의 孔子思想과는 變質된 儒家思想이 되었고 또 經解도 그린 方向으로 變質되어 갔다. 後漢末에 이르러 많은 儒家들이 變質된 儒家思想에 嫌惡를 갖게 되자. 當代의 著名한 學者들인 馬融, 鄭玄等이 古文經을 갖고 전통의 儒家思想에 附合시켜 經解하기 시작하니 많은 學者들이 이에 追從하기에 이르렀다. 毛詩도 이에따라 三家詩와는 別途의 詮訓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이른 바 毛詩傳箋인 것이다. 따라서 毛詩가 三家詩보다 더 優秀하고 劣等하고의 問題 이전에 儒家의 전통思想을 要求하는 當代에 가장迎合된 詩經의 註解書였기 때문에 獨傳된 것이지 결코 平實簡要하다거나 厥故喜新하는 人情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毛詩는 前漢末에 王莽이 專權을 掌握하고 專橫하던 平帝時에 一時 左氏春秋·古文尚書·逸禮等과 더불어 四種이 古文博士로 列立되었으나 어디 까지나 一時일 뿐 後漢代에 와서는 다시 學官에서 逐出당하고 말았다. 따라서 後漢代에도 毛詩는 學官에 列立되지 못하고 後漢이 滅한 후 三國의 魏代에 와서 今文經을 물리치고 古文經이 經學의 전통을 繼承하게 되면서 毛詩도 浮上하게 되고 反面에 三家詩는 一路 衰微하여 간다.

오늘날까지 傳來되고 있는 詩經은 漢書藝文志에 記載되어 있는 毛詩二十九卷과 毛詩故訓傳三十卷중 毛詩故訓傳三十卷뿐이다.

2. 毛公, 毛亨, 毛萇

毛詩의 撰者는 누구인가? 漢書에는 다만 「毛公」 또는 「趙人 毛公」이라고만 記述하고 있는데 後世에 撰述된 隋書에는 漢初의 「趙人 毛萇」이라고 明記되어 있다.

漢書 儒林傳에 :

毛公，趙人也。治詩，爲河間獻王博士，授同國貫長卿，長卿授解延年，延年爲阿武令，授徐敷，敷授九江陳恢，爲王莽講學大夫，由是言毛詩者本之徐敷。

班固(孟堅 32~92)가 漢書를 撰述할當時에는 毛詩의 撰者가 趙나라 사람 毛氏인 것만 알았고 이름은 봉라 列傳에 登載하면서 毛公이라고 姓만 記述하고 그후의 傳授人은 姓名을 明確히 記錄하고 있다.

毛詩正義, 關雎篇에서 孔穎達은 鄭玄의 詩譜에서 引用하기를 :

魯人大毛公爲詮訓傳於其家，河間獻王得而獻之，以小毛公爲博士。

鄭玄의 時代에 와서는 毛公이 두 사람으로 增加된다. 詮訓을 지은 사람은 魯나라의 大毛公이고, 博士가 된 사람은 小毛公이다.

또 三國, 吳의 陸璣은 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서 記述하기를 :

毛亭作詮訓傳，以授趙國毛萇。時人謂亭爲大毛公，萇爲小毛公。

陸璣代에 와서는 더욱詳細하여 저 詁訓을 著述한 사람은 毛亨이고, 이를 世稱 大毛公이라 하며 이 詁訓傳을 傳授받은 사람은 趙人 毛萇으로 世稱 小毛公이라하고 있다.

後漢書 儒林傳에는 :

趙人毛萇傳詩, 是爲毛詩

南北朝代의 范曄(蔚宗 398~445)은 趙人 毛萇이 詩를 傳했는데 이것이 毛詩이다라고 한다.

上記 史料에 의하면 班固(32~92)가 漢書를 撰述할 때는 毛詩 詁訓을 著作하여 傳한 사람이 趙나라의 毛公 한 사람인데, 鄭玄(康成, 127~200)이 詩譜를 著述한 때는 毛詩 詁訓을 著述한 大毛公과 博士가 된 小毛公 두 사람이 된다. 三國 吳(222~280)의 陸璣이 毛詩草木鳥獸蟲魚疏를 著述한 때는 詁訓傳을 지은 것은 毛亨으로, 이를 大毛公이라하고, 이것을 傳授받은 것은 趙나라의 毛萇으로 이를 小毛公이라 하고 있다. 鄭玄과 陸璣의 說을 綜合하면 詁訓傳을 지은 大毛公은 魯나라의 毛亨이고 이것을 傳授받아 博士가 된 것은 小毛公으로 趙나라의 毛萇이 된다. 그렇다면 班固가 말한 毛公은 詁訓傳을 지은 魯나라의 毛亨이 아니라 趙나라의 毛萇이 된다. 과연 班固가 漱書에 毛公의 列傳을 著錄하면서 두 사람의 毛公이 있었음을 모르고 한 사람의 毛公 即 詁訓傳을 傳授받은 趙나라의 毛萇만을, 그것도 名字를 몰라 毛公이라고만 하였겠는가 하는 것은 問題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古事が 後代에 올수록 더욱 明確하고 詳細하여지는 것은 疑心의 餘地가 있다.

鄭玄이 「魯人大毛公爲詁訓傳於其家, 河間獻王得之」라고 한 것은 疑心이 된다. 河間國은 漱書 地理志 卷八下에 다음과 같이 記述되어 있다.

河間國, 故趙, 文帝二年別爲國.

河間國은 옛 趵나라 땅이다. 그렇다면 毛亨은 본래 魯나라 사람인데 趵에 移徙와서 살며 治詩했다는 것인가? 또 그가 魯人이라면 마땅히 三家詩중의 魯詩와 毛詩가 類似한 點이 많아야하겠으나 그렇지 않다. 毛詩는 趵나라에서 傳來되어 来으며 魯詩와는 系統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 따라서 鄭玄이 말한 「魯人毛亨」은 「趙人毛亨」의 誤傳이 아닌가 한다. 河間獻王德은 漱景帝의 아들로 景帝2年(B.C. 155)에 河間王으로 冊封되었으며 그후 26년만(B.C. 130)에 죽었다.⁵⁾ 鄭玄의 論理에 따르면 大毛公은 河間獻王以前의 人物이고 河間國의 博士가 된 毛萇은 河間獻王과 同時代 人物이 된다. 그렇다면 班固(A.D. 32~A.D. 92)와의 距離는 不過 150年부터 250年以內가 되는데 비록 毛公의 名字는 調査中에 失檢되는 경우가 있다할지라도 두 사람의 毛公, 즉 詁訓傳을 지은 毛公과 이것을 傳授받은 毛公이

4) 鄭樵·詩辨妄 「齊魯燕趙四詩, 土音不同, 訓詁亦異。故孔穎達曰: 三家之詩, 字與毛詩異者動以百數。及證之他書, 三家之學, 非徒字異, 亦併與主義俱異矣。……」

5) 漱書, 卷十四上 諸侯王表第二, 河間獻王: 「景帝子, 二年三月甲寅立, 二十六年薨」

다름에도 또 年代의 으로 크게 相距되자 않음에도 後者인 毛茛만을 記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설사 大毛公과 小毛公이 있었다 할지라도 大毛公은 魯人이고 小毛公은 趙人이라고 한 鄭玄의 說은 妥當하지 못하다.

3. 毛詩序와 三家詩序

隋書經籍志에 「先儒相承謂之毛詩序，子夏所創，毛公及敬仲又加潤益」라고 記述되어 있다. 毛詩에는 先儒로부터 相傳되어오는 毛詩序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子夏가 創作하고 毛公과 衛宏(敬仲)後漢 光武帝年間 A.D. 25~A.D.57에 議郎을 지냈음⁶⁾)이 潤益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詩序는 毛詩에만 있고 다른 三家詩에는 전혀 없는것인가?

鄭樵(漁仲 1104~1160)는 詩辨妄에서 다음과 같이 論及했다.

齊詩無序 … …魯詩之序，有無未可知

또 紀昀의 四庫全書總目提要, 詩序二卷條下에 記述하기를 :

觀蔡邕本治魯詩，而所作獨斷，載周頌三十一篇之序，皆祇有首二句，與毛序文有詳略，而大旨則同，

魯詩는 漢代 蔡邕(伯喈 132~192)이 獨斷으로 周頌三十一篇의 序를 著作하였는데 모두가 다만 二句씩으로 되어 있으나 毛詩序보다는 詳細하면서 簡略하고 大旨는 비슷하다고 한다. 이것은 魯詩에는 本來 故序가 없었다는 것을 間接적으로 示唆한 것이다. 또 曺晉藝文志에는 :

韓詩卜商序，韓嬰注二十二卷。

現存되고 있는 韓詩의 殘缺本인 韓詩外傳에 詩序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片鱗을 窺知할 수 있다.

上述한 諸文獻으로 보아 三家詩中에서 齊詩에는 序가 없고 魯詩에는 本來는 없었으나 漢代에 蔡邕이 周頌三十一篇에 序하였고 韓詩에는 子夏(名卜商 B.C. 507~B.C. 400)의 序가 있었던 것으로 傳하여져 온다. 그런데 清代 三家詩 研究에 功獻한 魏源은 詩古微에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水經注引韓詩周南序曰，其地在南郡南陽之間，至諸家所引韓詩，如關雎刺時也，漢廣說人也，汝墳辭家也，芣苢傷夫有惡疾也，黍離伯封也，蟻諫刺奔女也，四月歎征役也，閟宮有恤，公子奚斯作也，那美襄公也，皆與毛詩首語一例，則韓詩有序明矣。

齊詩最殘缺，而張楫魏人習齊詩，其上林賦注曰，伐檀刺賢者不遇明主也，其爲齊詩之序明矣。

劉向楚元王孫，世傳魯詩，其列女傳，以芣苢爲蔡人妻作，汝南爲周南大夫妻作，行露爲召南申女作，視毛序之空銜者，尤鑿鑿不誣，且息夫人傳曰，君子故序之於詩，黎莊夫人傳曰，君子故序之以編詩，而

6) 後漢書 衛宏列傳

向所自著書, 亦曰新序. 是魯詩有序明矣.

魏源은 水經注와 諸家書에 引用된 韓詩序를 例擧하고 韓詩序가 있었음을 論證하고 있다. 現存하는 韩詩外傳에도 序가 있다는 것은 上述한 바이다.

齊詩는 가장 殘缺되어 있으나 漢代 司馬相如가 쓴 上林賦에 魏나라 사람 張楫이 注를 썼는데 그注에 詩經 國風의 齊風, 伐檀篇을 「賢者가 明主를 만나지 못한 것을 刺한 것」이라고 한 序가 있다는 것이다. 魏나라에서는 齊詩를 익혔기 때문에 张楫이 齊詩의 序를 引用한 것이니 齊詩序가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論據가 稀薄하다. 张楫이 傳來의 詩序에서 引用했다고 言及하기 以前에는 確言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张楫自身의 見解일 수도 있고 또 齊詩를 治詩한 어느 個人일 수도 있을뿐 齊詩의 序라고 明記되어 傳하여져 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魯詩序에 對하여는 劉向(子政 B.C. 77~B.C.6)의 列女傳에 나오는 詩經의 引用을 들고 있다. 魏源은 劉向이 楚나라 元王의 孫이고 楚나라에서는 魯詩가 世傳되었기 때문에 劉向이 引用한 것은 魯詩序임에 틀림없고 또 그가 書藉을 著述하고는 故序에 對稱되게 新序라고 한 것으로 보아 魯詩에 故序가 있었음에 틀림 없다고 한다.勿論 劉向이 詩를 引用하면서 魯詩序를 引用할 수도 있겠고 또 毛詩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의 校閱도 보았던 그인 만큼 그自身的 見解로 쓸 수도 있다. 또 「君子故序之於詩」니 「君子故序之以編詩」라고 한 語句는 매우 注目된다. 이 故序가 과연 魯詩의 故序인지, 毛詩의 故序인지 또는 他書의 故序인지 전혀 論及한 것이 없어 考證할 길이 없다. 다만 그가 著作한 新序를 詩故序와 對稱하기 위하여 그렇게 命名하였다는 것에는 異議가 있다. 新序는 春秋부터 漢初까지의 軼事中法戒가 되는 것들을 輯集하여 解說한 書藉⁷⁾인 만큼 詩와는 전혀 關係가 없다. 구태어 對稱하기 위하여 이런 書名을 썼다면 詩序가 아닌 다른 故序가 있었음에 틀림 없다.

詩經은 秦火以後 漢代에 와서 齊·魯·燕·趙의 四國에서 出現하였다. 이렇듯 傳來된 地方이 다르고 이것을 傳授繼承한 系統이 다르므로 師傳의 詩가 系統에 따라 그것을 治詩한 人物도 다르고 話訓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다만 齊·魯·韓의 三家詩가 亡佚된 오늘날 이 렇듯 莫然하고 斷片的인 記錄으로는 秦火以前부터 傳來된 詩序가 있었는가의 與否를 究明한다는 것은 至難하다. 이렇듯 三家詩에 詩序가 있었는가의 與否만으로는 詩序研究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 고로 現今의 詩序研究는 現存되고 있는 唯一한 詩序인 毛詩序에限할 수 밖에 없다.

4. 歷代毛詩序著者諸說

(1) 漢代諸說

7) 近藤圭編 中國學藝大辭典

毛詩序는 언제 누가 어떤思想으로著述하였는가? 먼저著者부터考究하여 본다. 이미上述한 바 隋書經藉志에 「先儒相承謂之毛詩序, 子夏所創, 毛公及敬仲又加潤益.」이라 하여毛詩序는子夏가처음著作하였다고한다.子夏創作說은 어디에淵源을 두었는가? 陸德明의 經典釋文에 다음과 같이 鄭玄의 詩譜序를引用하고 있다.

大序是子夏作, 小序是子夏毛公合作. 卜商意有未盡, 毛公更足成之.

毛詩序의子夏創作說은 鄭玄의 詩譜序에서비롯된다. 鄭玄은 大序는子夏가著述하였는데, 後世에毛公이子夏가쓴小序중뜻이未盡한것을潤益했다는것이다. 그런데鄭玄보다前代인班固는漢書에서전혀詩序에대해言及하지않고있다. 다만漢書藝文志에서「自謂子夏所傳」이라고하였을뿐子夏가序를썼다는記述은더욱이없다. 또鄭玄은毛詩鄭箋,卷第九末에서詩序를더具體的으로論하고있다.

(小雅의南陔·白華·華黍)此三篇者, 鄕飲酒燕禮用焉. 曰笙入, 立于縣中, 奏南陔·白華·華黍是也. 孔子論詩, 雅頌各得其所時俱在耳. 篇第在於此, 遭戰國及秦之世而亡之. 其義則與衆篇之義合編, 故存. 至毛公爲詁傳, 乃分衆篇之義, 各置於其篇端云.

鄭玄은小雅의南陔·白華·華黍等은鄉飲酒燕의儀禮때쓰이던詩로笙의演奏에맞추어노래부르게되어있으며縣에서불렸다고한다.孔子가「雅頌各得其所」⁸⁾라고하였을때만하여도있었는데, 戰國末秦火때散佚되었으며그序는다른序와함께合編되어있었기때문에散佚되지않고남아있게되었다.毛公이詁訓傳을지었을때各篇의序를各詩篇의首端에나누어놓았다고한다. 이것은詩序가秦火以前에는各序가合編되어있었고오늘날에보는毛詩序가各詩篇의首端에붙게된것은毛公이그렇게했다는것이다. 즉毛詩序는子夏가만들었다는間接의인示唆가된다.

그런데後漢書儒林傳衛宏列傳에는다음과같은記錄이있다.

衛宏·字敬仲東海人也, 少與河南鄭興俱好古學. 初九江謝曼卿善毛詩, 乃爲其訓. 宏從曼卿受學, 因作毛詩序, 善得風雅之旨, 于今傳於世. 後從大司空杜林更受古文尚書, 為作訓旨. 時濟南徐巡師事宏, 後從林受學, 亦以儒顯, 由是古學大興. 光武以爲議郎, 宏作漢舊儀四篇, 以載西京雜事, 又著賦·頌·誄七首, 皆傳於世.

衛宏의列傳은비록簡單하나그의事蹟에對하여는明瞭하게記載되어있다. 謝曼卿에게서毛詩를배워毛詩序를著作하였고, 大司空杜林에게서古文尚書를배워訓旨를지었으며, 弟子로는濟南人徐巡이있고, 後漢光武時代에議郎의官職을지냈다.作品으로는그밖에漢儀四篇과賦·頌·誄七首가있으며世上에傳하여지고있다했다.衛宏은그生卒年代가明確하지않으나스승인大司空杜林이光武帝建武二十三年(A.D. 47)에卒하였

8)論語子罕篇:「吾自衛反魯, 然後樂正, 雅頌各得其所.」

고 또 그가 光武年間(A.D. 25~57)에 議郎의 벼슬을 했다는 記錄으로 보아 光武年間의 人物임이 明確하다. 그런데 鄭玄은 後漢順帝永建二年(A.D. 127)에 태어나서 獻帝建安五年(A.D. 200)에 죽은 사람이니 衛宏과는 不過一百五十餘年이 相距된다. 그런데도 그가 治詩하면서 衛宏이 詩序를 지었다는 事實을 몰랐다는 것은 納得이 가지 않는다. 또 後漢書를 撰한 范曄(蕭宗 A.D. 398~445)은 鄭玄과 二百餘年이 相距된다. 그리고 鄭玄이 治詩하여 當時に 이미 毛詩鄭箋이 詩經을 代表하여 行世한 時代였으므로 鄭玄의 文章을 믿지 않았을 理가 없는데도 果敢히 後漢의 大學者인 鄭玄이 論及한 것을 뒤엎고 毛詩序는 衛宏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을 때에는 當然히 그에 相應할 만한 論據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우기 范曄은 衛宏列傳의 末尾에 衛宏의 列傳과는 關係없이 毛詩에 關하여 強調하고 있다.

中興後，鄭衆，賈逵傳毛傳，後馬融作毛詩傳，鄭玄作毛詩箋。

上述한 바는 바로 그가 毛詩에 對하여 많은 關心을 가졌다는 또 하나의 實證이며 自身의 記述을 再確認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三國時代 吳(229—280)의 陸璣(字元恪)는 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서 :

孔子刪詩授卜商，商爲之序。……九江謝曼卿，亦善毛詩，乃爲其訓，東海衛宏從曼卿受學，因作毛詩序，得風雅之旨

陸璣은 孔子가 刪詩하여 子夏(卜商, B.C. 507~B.C. 400)에게 傳授하자 子夏가 이의 序를 著作하였다하고, 또 衛宏이 謝曼卿에게서 毛詩를 傳授받아 詩序를 著作한 것이라 하고 있다. 그렇다면 毛詩序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된다. 또 唐의 魏徵等이 撰한 隋書經藉志의 「先儒相承謂之毛詩序，子夏所創，毛公及敬仲又加潤益。」이라고 한 記述等은 바로 鄭玄의 詩譜序와 後漢書 衛宏列傳사이에서 混迷하여 彷徨하다가 두 說을 綜合한 感이 든다.

唐書藝文志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韓詩二十卷，卜商序，韓嬰撰。

韓詩卜商序韓嬰注二十卷

韓詩에도 子夏의 序가 있다는 것이다.

上述한 諸書를 綜合하여 보면 子夏의 詩序는 毛詩에도 있고 韓詩에도 있으며 또 衛宏이 지은 것도 있다는 것이 된다. 子夏가 序를 著述했다면 毛詩나 韓詩의 區分이 있기 전인 秦代以前에 著作하였을 것이므로 參差가 있을 수 없다. 韓詩는 唐代에 亡佚되었으나 殘缺本인 韓詩外傳이 現存하고 있으며 詩序도 數篇이 남아 있어 이를 毛詩序와 比較檢討 한다.

國風，周南，芣苢篇：

毛詩序·「芣苢后妃之美也。和平，則婦人樂有子矣。」

鄭 箋·「天下和·政教平也。」

韓詩序：「傷夫也」

國風·周南·漢廣篇：

毛詩序：「漢廣·德廣所及也·文王之道·被于南國·美化行乎江漢之域·無思犯禮·求而不得也.」

鄭 箋：「紂時淫風徧於天下·維江漢之域·先受文王之教化.」

韓詩序：「悅人.」

上記 두例文에서 본 바와 같이同一한詩에對한毛詩序와韓詩序가判異하다. 만약에毛詩序와韓詩序가子夏의作이라면비록傳授의歲月이長久하고數多한傳授者를經過하였기때문에字句上의亂脫은있을수있으나文義조차完全히判異하거나相反될수는없는것이다. 따라서毛詩序와韓詩序는그淵源이同一人이라고는할수없다.

(2) 唐代諸說

毛詩鄭箒이行世하면서三家詩가漸次衰退하자詩序의著者は鄭玄의詩譜序에依하여子夏說로穩定되어唐初孔穎達의毛詩正義에까지이른다.孔穎達은毛詩正義詩譜序疏에서 다음과같이鄭玄의主張을再確認하고있다.

據今者及亡詩六篇，凡有三百一十一篇皆子夏爲之作序。

唐代에와서鄭玄의主張에疑問을품고詩序를穿鑿하기시작한사람으로成伯璵를첫머리에들수있다.그는毛詩指說에서다음과같이論述하고있다.

子夏惟裁初句，至也字而止；葛覃后妃之本也 鴻雁美宣王也，如此之類是也。以下皆是大毛公自以詩中之意而繫其辭也。

成伯璵는毛詩序를觀察하고는鄭玄이「大序子夏作，小序是子夏毛公合作.」이라고한說에대해異論을提起하고있다.그는詩每篇의序의첫머리에나오는「……也」까지는子夏가짓고그뒷부분은後에大毛公이詩의文義에따라지은것이라고있다.그의이러한主張이비록劃期의이고革新的인것은못된다하더라도傳來의說에대한討究의試圖라는점에서는높이評價되고있으며그후宋代學者間에發生한漢代學術에대한疑古精神의先聲이라하겠다.

韓愈(退之 768~824)는毛詩序의著者에대하여大膽하게異論을提起하고있다.宋代李標，黃楨의毛詩集解에韓愈의詩之序議를다음과같이引用하고있다.

察夫詩序，其漢之學者，欲顯立其傳，因藉之子夏，故其序大國詳，小國略，斯可見矣。

韓愈는詩序를觀察하건데그것은漢代學者들이毛詩傳을顯立시키고자하여子夏가지은것이라고憑藉한것이며그理由로는大國은詳述하고小國은略述한것으로알수있다는것이다.子夏가썼다면그런偏頗의인作法은하지않았을것이라는것이다.韓愈의이러한主張은鄭玄에대한不信과唐代大儒家인孔穎達이勅撰한毛詩正義에對한挑戰이

다. 唐代의 傳統派 儒家인 韓愈가 傳來의 儒家經典의 註解에 대하여 이렇듯 대담하게 새로운 反論을 提起하고 있다는 事實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렇듯 成伯瓊나 韓愈가 進步的이고 草新的인 理論을 提起했으나 唐代에는 그 以上 進展이 없었다.

(3) 宋代諸說

宋代에 이르러 大儒家이며 大政治家인 歐陽修(永叔 1007~1072)에 의해 毛詩序著者에 대한 議論이 提起된다. 宋代는 疑古의 學風이 盛行하던 時代였으므로 詩經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經典全般에 걸쳐 새로운 學說이 量產되던 時代였다. 따라서 漢代 學術思想에 對하여 많은 批判이 나왔다. 歐陽修는 毛詩本義 卷十六에서 經解의 基本立場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先儒於經，不能無失 而所得固已多矣。盡其說而理有不通，然後以論正之。

그는 詩序의 著者에 대하여서는 詩本義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作序者多不得詩之眞意，斷爲非如子夏之賢者所作 其孔子所作尤不言可諭。

詩序를 보건대 作序者가 거이 詩의 眞意를 모르고 있어 단연코 子夏와 같은 賢者가 지은 것이 아니다. 孔子가 지었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된다고 했다.

上述한 바로 보아孔子의 著作이라고 主張한 學者도 있는등 當時에 이미 적지 않은 論難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 序問에서 :

或謂詩之序卜商作乎？衛宏作乎？非二人之作，則作者其誰乎？應之曰：書春秋皆有序而著其名氏，故可知其作者 詩之序不著其名字，安得而知之乎？雖然非子夏之作，則可以知也。曰何以知之？應之曰：子夏親受學於孔子，宜其得詩之大旨 其言風雅有正變，而論關雎鵲巢，繫之周公召公，使子夏而序詩，不爲此言。

歐陽修는 尚書나 春秋에도 모두 序가 있고 著者的 姓名이 있는데 唯獨 詩序에는 著者的 姓名이 없는 것으로 보아 子夏나 衛宏의 作은 아니다. 또 子夏는 孔子에게서 친히 詩를 배웠으므로 詩의 大旨를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詩序에는 風雅에 正變이 있다고 하였고 또 關雎와 鵲巢를 周公이나 召公에 連繫한 것으로 보아 子夏에게 序를 쓰게 하였다면 이런 記述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詩本義의 많은 部分에서 詩序의 不適合한 點을 指摘하고 麟之趾篇에서 詩序의 著者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則序之所述，乃非詩人作詩之本意 是太師編詩假說之義也。毛鄭遂執序意以解詩。是以太師假說之義解，詩人之本意宜其失之遠也。

그는 詩序를 太師들이 編詩할 때 불인 假說이라 하여 太師의 作으로 보고 있다.

范家相은 詩濱에서 王安石(介甫, 1021~1086)의 말을 다음과 같이 引用하고 있다.

詩序者詩人所自製。

王安石은 歐陽修와는 反對로 詩序를 詩人의 自作이라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宋 晁公武(子止, 1144年 前後在世)는 群齋讀書志에서 다음과 같이 反駁하고 있다.

詩序蕭統以爲卜子夏所作，王介甫獨謂詩人自製；按韓詩序。朱舊曰傷夫也。漢廣曰悅人也；序若詩人自製，毛詩猶韓詩，不應不同若是。

晁公武는 만약에 詩人의 自作이라면 毛詩序와 韓詩序가 같아야 할것인데 다른 것으로 보아 잘못된 說이라하고 있다.

程頤(正叔 1033~1107)는 二程遺書, 卷十八, 伊川先生語十에서

詩之大序分明是聖人作，……問小序何人作？……曰序中分明言國史明乎得失之跡，如非國史則何以知其所美刺之人，使當時無小序，雖聖人亦辨不得。

程頤는 大序는 틀림없이 聖人の 作이라하고 있다. 聖人이라면 孔子를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小序는 國史의 作이라하고 있다. 그는 또 伊川先生語五에서도 거듭 強調하고 있다.

詩小序便是當時國史作

그는 詩가 著作된當時의 國史가 아니고는 美刺의 批評을 내릴 수가 없으며 설사 聖人이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蘇轍(子由 1039~1112)은 詩集傳에서 다음과 같이 異論을 提起하고 있다.

今毛詩之序……其言時有反覆煩重，類非一人之辭者，凡此皆毛氏之學而衛宏之所集錄也。

蘇轍은 毛詩序를 보건대 反覆되고 煩重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코 한 사람이 쓴 것 아니고 毛詩를 배운 學者들이 썼을 것을 衛宏이 集錄한 것이라고 있다.

王得臣(彥輔, 嘉祐時 1056~1063 進士)은 墓史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詩序蓋出於孔子，非門弟所能與也。若關雎后妃之德也，葛覃后妃之本也；此一句孔子所題，其下乃毛公發明之。

王得臣은 毛詩序의 初句 즉 첫머리의 「……也」까지는 孔子가 짓고 남어지는 毛公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上述한 諸家의 說을 보면 毛詩序의 著者를 孔子나 子夏의 作， 또는 毛公，國史의 合作， 또는 毛公之學을 한 學者들의 說을 衛宏이 集錄한 것이니 하여 毛詩序를 儒家經典의 經解의 範圍내에 두고 著者의 範圍도 儒家의 大人物중에서 探索하고 있다.

鄭樵(漁仲, 1104~1160)는 歷代의 諸說을 果敢하게 否定하고 毛詩序를 批難하는데 가장

積極的인 人物이다. 그는 詩辨妄에서 다음과 같이 毛詩序를 論及하고 있다.

或者曰：大序作於子夏，小序作於毛公。此說非也。序有鄭註而無鄭箋，其不作於子夏明矣。毛公於詩，第爲之傳，其不作序又明矣。……謂大序作於聖人非也。……今觀序專取諸書之文至數句者，有雜取諸家之說，而辭不堅決者，有委曲宛轉，附經以成其義者。

鄭樵는 毛詩序를 子夏가 著작하였다면 宜當 詩序에 毛公의 傳이 있고 이에 따라 鄭玄의 箋이 있을 것인데 鄭玄의 註만이 있는 것으로 보아 子夏가 詩序를 著述한 것이 아니다. 또 毛公은 傳만했지 序를 쓴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 詩序를 보건데 諸書의 文句를 專取하였거나 諸家의 說을 雜取하여 文辭가 堅決하지 못하고 委曲宛轉하여 經典에 附合시킨 것이라고 한다. 그는 結論으로 詩序의 著者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詩序……皆是村野妄人所作。

그는 村野妄人의 作이라고 酷毒하게 批難하고 있다.

이렇듯 毛詩序의 著者는 孔子，子夏에서 村野妄人으로 急轉直下한다.

鄭樵의 說에 가장 큰 影響을 받은 사람은 宋代의 大儒 朱熹(元晦 1130~1200)이다. 그는 朱子語錄 卷 八十 및 晦菴先生語類要 卷第十六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詩序不足信，向來見鄭漁仲有詩辨妄力詆詩序，其問言語太甚，以爲皆是村野妄人所作。始亦疑之；後來仔細看一兩篇，因質之史記 國語，然後知詩序之果不足信。因是看行葦·賓之初筵·抑數篇，序與詩全不相似。以此看其他詩序，其不足信者許多。以此知人不可亂說話，便都被人看破了。

大率詩人假物興辭，將上句引下句，如行葦：「勿牋履，戚戚兄弟，莫遠具爾」 行葦是此兄弟，勿字乃興莫字，此詩自是飲酒會賓之意。序者却牽合作周家忠厚之詩，遂以行葦爲仁及草木。如云、「酌以大斗·以祈黃耇」。亦是歡合之時，祝壽之意。序者遂以爲養老乞言。豈知祈字本只是祝頌其高壽，無乞言意也 …

大率古人作詩，與今人作詩一般。其間亦自有感物道情，吟詠情性。幾時盡是譏刺他人，只緣序者立例，篇篇要作美刺說，將詩人意思盡穿鑿壞了。且如今人見人纏做事，便作一詩歌美之或譏刺之，是甚麼道理。

朱熹는 鄭樵의 說을 보고나서 비로서 詩序와 詩를 다시 자세히 檢討하여 보니 詩序가 詩의 本意에 맞지 않음을 알았다하고 詩經 行葦篇을 例로 들어 詩序가 詩의 本意와는 관계 없이 詩를 道德에 附會시켰다고 批難하고 있다. 그는 또한 모든 詩를 美刺說로 評한 것은 무슨 道理인지 모르겠다고 辛辣하게 批評하고 있다. 그는 詩序의 著者를 다음과 같이 結論 짓는다：

大序說：止乎禮義 亦可疑。小序尤不可信，皆是後人託之，仍是不識義理，不曉事如山東學究者。

朱熹는 大序에서 「止乎禮義」라는 것도 의심스럽고 小序는 더욱 믿을 수 없으며 義理도 모르고 事理도 모르는 「山東學究者」와 같은 人物이 지은 것이라 하여 鄭樵의 「村野妄人」에 同調하고 있다.

그는 또 詩經遺說 卷一에서 自身의 經驗을 土臺로 詩經의 讀法을 다음과 같이 開陳한다.

今欲觀詩，不若且置小序及舊說，只將元詩虛心熟讀，徐徐玩味，候彷彿見個詩人本意，却從此推尋將去，方有感發。如人拾得一個無題目詩，再三熟看，亦須辨得出來。若被舊說一局局定，便看不出。今雖說不用舊說，終被他先入內，不期依舊從他去，烹向作詩解文字。初用小序，至解不行處，亦曲爲之說。後來覺得不安，第二次解者，雖存小序，間爲辨破，然終是不見詩人本意。後來方知只盡去小序，便自可通，於是盡涤蕩舊說，詩意方活。

上述한 바로 朱熹가 詩集傳을 세 번만에 完成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그가 詩經에 대하여 얼마나 刻苦의 努力を 傾注하였는가도 알 수 있다. 윗 글은 그가 詩集傳을 完成하고 나서, 學問하는 態度는 客觀的이어야 하며 先入見이 얼마나 讀者를 誤導하는가를 述懷하고 있다. 그는 虛心熟讀하되 詩人の 本意가 나타날때 까지 徐徐히 玩味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朱熹의 詩集傳은 그후 元·明代 七百年間 國定教科書와 같이 널리 普及되었고 詩經註解의 唯一本으로 行世하기에 까지 이른다. 元代 延祐科舉條例에는 科舉試驗의 詩經科目的 必須教本으로 詩集傳이 明示된 것만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鄭樵, 朱熹에 이어 毛詩序를 排擊한 學者로는 王質(詩總聞), 程大昌(詩論), 王柏(詩疑), 曹粹中(放齋詩說)等이 있다. 이중에 曹粹中(純老, 宣和 1119~1121 時代 進士)의 說은 特히 慎重하다. 그는 放齋詩說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毛傳初行時，猶未有序也。意毛公既託之子夏，其後門人互相傳授，各記其師說，至宏而遂著之，後人又復增加，殆非成一人之手。

曹粹中은 蘇轍의 說에 同意하면서 더욱 詳細히 考察하고 있다. 그는 毛詩傳이 처음 出現하였을 때는 詩序가 없었다. 毛公의 門人们이 각기 그들 스승들의 說을 記錄하여 두었던 것을 衛宏이 集錄하고 또 後人们이 다시 潤益한 것으로 결코 一人의 著作이 아니라하고 있다. 또 그는 毛公의 著作이 아니라는 根據로는 召南의 羌羊篇과 曹風의 鴻鳩篇, 衛風의 君子偕老篇의 毛詩傳과 詩序를 例舉하고는

傳意序意不相應，序若出於毛，安得自相違戾？

그는 만약에 毛詩序를 毛公이 著作했다면 毛詩傳과 詩序가 相應되어야 할터인데 同一人物이 著述한 것이 違戾된 것을 보니 결코 詩序는 毛公이 著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鄭樵·朱熹等이 詩序를 이렇게 酷毒하게 批難하는데 反하여 毛詩序를擁護하는 一派들의 反撥 또한 甚大하다. 그들은 傳統的인 毛詩序가 아니고는 詩經은 絶對로 解得될 수 없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毛詩序擁護派로는 呂祖謙(呂氏家塾讀詩記), 嚴粲(詩緝), 葉適(水心集), 黃震(讀毛詩), 馬端臨(文獻通考)等을 들 수 있다. 특히 代表的人物이라고 할 수 있는 呂祖謙(伯泰 1137~1181)은 朱熹와는 거이 같은 年輩로 學問으로 來往이 가장 密

接한 關係였으나 朱熹가 鄭樵說을 追從하였음에도 그는 傳統의 毛傳鄭箋을 固守하고 있다. 그는 呂氏家塾讀詩記에서 毛詩序를 毛傳鄭箋과 같이 踏襲하고 있으며 특히 前人들의 注解중에 적지 않은 「朱子曰」을 引用하고 있는데 이것은 朱熹의 詩集傳 初稿로 鄭樵說을 追從하기 以前에 著述한 것이다. 呂祖謙의 뒤를 이어 嚴粲은 詩緝에서 呂祖謙의 說을 이어 받아 毛詩序를 採用하고 있다.⁹⁾

葉適(水心 1150~1223)은 水心集에서 다음과 같이 詩經의 解釋에서 詩序는 不可缺한 것이라고 論述하고 있다.

詩序隨文發明，或紀本事，或釋詩意，皆在秦漢之前·雖淺深不盡當，讀詩者以時考之，以義斷之，惟是之從可也。若盡去本序，自爲之說，失詩意愈遠矣。

葉適의 說은 盲目에 가깝다. 그는 詩序가 詩의 文字를 밝혀내거나, 詩의 本事를 쓰거나 또는 詩가 담고 있는 뜻을 解釋한 것으로 모두가 秦漢以前부터 있던 것이다. 비록 詩序가 그 詩의 깊고 낮음을 完全히 맞게 풀이하지 못했다하더라도 詩를 읽는 者가 時期를 알고 뜻을 아는데는 오직 이것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 만약에 詩序를 모두 除去하고 獨自의으로 풀이한다면 詩의 뜻은 더욱 멀어지고 만다고 한다.

또 黃震도 讀毛詩에서 다음과 같이 論及하고 있다.

夫詩非序莫知其所自作。去之千載之下，欲一旦盡去自昔相傳之說，別求其說於茫冥之中，誠難事。

詩는 詩序가 아니면 그 지은 까닭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千年後에 와서 하루 아침에 옛날부터 傳하여 오던 詩序를 모두 除去하고 달리 그 說을 아득하고 어두운 곳에서 求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한다.

上述한 이러한 諸說은 다만 詩經은 여러가지 뜻이 隱喻·內包되어 있어 詩序가 없이는 絶對로 詩經의 本意를 알수 없으며 또 古代부터 傳하여 오던 詩序를 왜 구태어 버리려고 하느냐하는 것이다. 이렇듯 그들의 論意는 傳統說에 對한 盲目的 追從일뿐 論據가 없으므로 信憑性을 끓을 수 밖에 없다.

鄭振鐸은 讀毛詩序¹⁰⁾에서 詩經解釋의 態度를 다음과 같이 論及하고 있다.

我們自當以詩文爲主；不能據序以誤詩。詩序如與詩意相合，我們便當遵牠；如大背詩意，則不問其古不古，不問其作者之爲孔子抑他人，皆非排斥不可。

鄭振鐸의 이런 論理는 매우 妥當한 것이다. 우리가 詩經을 解釋함에는 따뜻이 詩文을 爲

9) 何定生, 詩經今論, 宋儒對於詩經的態度 「朱子又附和鄭樵之說以作集傳，遂爲反毛派的主流，並且支配了宋以後七百年的詩經學。案朱子詩說，初時也承毛鄭之舊，所以當時和他來往最密的呂祖謙在他的呂氏家塾讀書記中，還常引朱子的話。後來朱子改從鄭樵，而呂氏仍堅守原來立場，又有嚴粲的詩緝，是支持呂氏讀詩記的。」

10) 小說月報第十四卷，第一號에 登載(1923年 1月 10日刊)，古史辨 第三冊下編

主로 하여 야지 詩序에 依하여 구태어 誤解할 수는 없는 것이다. 詩序가 만약 詩意에 맞는다면 그것을 따를 것이고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옛부터 傳하여 오는 것인든 또 孔子와 같은 聖人이 쓴것이든 子夏가 쓴것이든 排斥하지 않을 수 없다.

馬端臨은 文獻通考 辨詩序에서 主로 朱熹의 反詩序論을 論駁하고 있다.

詩書之序，自史傳不能明其爲何人所作，而先儒多疑之，至朱文公之解經，則依經文析而二之而備論其得失，而於國風諸篇之序，詆斥尤多。以愚觀之；書序可廢，而詩序不可廢。就詩而論之，雅頌之序可廢，而十五國風之序不可廢。何也？書直陳其事而已，序者後人之作；藉令深得經意，亦不過能發明其所已言之事而已，不作可也。詩則異於書矣。然雅頌之作，其辭易知，其意易明。至於讀國風諸篇，而後知詩之不可無序。

蓋風之爲體，比興之辭，多於敘述，風諭之意，浮於指斥，蓋有反覆詠嘆，而無一言敘作之意者，而序者乃一言以蔽之曰 爲某事也，苟非其傳授之有源，探索之無舛，則孰能臆料當時指意之所歸，以示千載乎……

作序之人，或以爲孔子，或以爲子夏，或以爲國史，皆無明文；然鄭氏謂毛公始以實諸詩之首，則自漢以前經師傳授，其去作詩之時，蓋未甚遠也。千載而下，學者所當遵守體認，以求詩人之意，而得其庶幾，不宜一切廢之，鑿空探索而爲之訓釋也。

馬端臨도 宋代 詩序擁護學者와 大略 같은 意見이지 特出한 論議는 없다. 그는 朱熹가 國風의 序를 특히 詆斥했는 데 自己는 이 說에는 反對하는 것이다. 書經의 序는 直陳其事한 記錄이므로 序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도 그 本意가 明確하며 또 詩經에 있어서도 雅頌詩는 直陳其事한 것이어서 解意를 쉽게 알 수 있으나 國風詩는 序가 없으면 絶對로 詩意를 알 수 없다. 風體는 比興之辭여서 거이 諷諭의 뜻으로 敘述되었으므로 敘作의 뜻이 한 마디도 없으나 序는 이것을 한 마디로 가리켜주고 있으니 序가 아니고는 千年前에 쓰여진 詩를 아무도 짐작할 수 조차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또 詩序를 毛公이 처음으로 各詩의 첫머리에 나누어 넣었다는 鄭玄의 記述이 있는 것으로 보아 漢代以前부터 이미 傳授된 것이라고 詩를 지은 時期와는 별로 멀지 않을 것이라고 詩序에 依하여 詩人의 本意를 求하여야 하며 詩序는 절대로 廢하여서는 않된다고 한다. 그는 間接的으로 子夏가 詩序를 지었음을 示唆하고 있다.

宋代 保守派의 이러한 強力한 反撥에도 不拘하고 朱熹의 詩集傳은 元明代까지 詩經을 代表하여 一世를 風靡했다. 그런데 朱熹의 詩集傳은 清代以後 近代에 이르면서 또 다른 方向에서 攻擊을 받게 된다. 宋代 保守派로 부터는 廢序한 것은 傳統의 常軌에서 逸脫한 것이라고 批難을 받았으나 近代에 와서는 朱熹의 詩集傳은 입으로만 廉序했을뿐 전혀 詩序의範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相反된 立場에서 攻擊을 받았다. 清代 學者들의 論說은 후에 記述하기로 하고 詩集傳에 대하여 가장 辛辣하게 批難한 近人們의 論述을 例擊한다.

近人 鄭振鐸은 讀毛詩序에서 다음과 같이 詩集傳을 評하고 있다.

朱熹的 詩集傳，雖然也是一堆很沈重，很不容易掃除，而又必須掃除的瓦礫，然而在他的許多壞處裏，

最大的壞處，便是因襲毛詩序的地方太多。許多人都公認朱熹是一個攻擊毛詩序最力的，而且第一個敢把毛詩序從詩經裏分別出來的人，而在實際上，除了朱熹認國風的「風」字應作「風謠」解，認鄭風是淫詩，與詩序大相違背，其餘的許多見解仍然都是被詩序所範圍不能脫身跳出。所以我們要攻擊詩集傳，仍然須先攻擊毛詩序。

鄭振鐸은 朱熹의 詩集傳의 功績을 우선 認定하고 있다. 詩經에서 毛詩序를 分離시킨 것, 國風의 「風」字를 「風謠」로 解釋한 것, 鄭風이 淫詩라는 것을 認定한 것 等이다. 그러나 詩集傳은 여전히 詩序의 範圍內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王何定生은 詩經今論 卷三, 朱子對詩經的分類에서 朱熹가 詩序의 範圍에서 벗어나지 못한 理由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案朱子對於詩經的樂歌解釋，除六笙詩外，其餘完全和儀禮的鄭注相一致。但鄭注對於儀禮的禮樂觀念，始終是離不開詩譜的，所以注釋的對象雖是儀禮的樂章，骨子裏仍然是一個有詩無樂的義理思想，這樣一來，不但一部儀禮的樂歌關係被曲解了。即周禮禮記所有的樂歌關係世無不在同一原則下被曲解，這是鄭氏(也可以說是漢人)的詩教思想體系。朱子即依據儀禮來解釋詩經的樂歌關係，自不能不入鄭氏的玄中而不自覺，這也是朱子雖反序而也終於掙不了序說的基本原因。要之，義理思想是詩經解釋所以不能不受序說影響的宿命因素，只要離開原始的禮樂關係來解釋詩經，便不能不陷入漢人義理思想的網羅，一旦陷入漢人義理思想的網羅，則漢宋解釋的優劣，便所差無幾了。

何定生은 朱熹가 詩經의 樂歌를 鄭玄과 같이 儀禮의 으로 注釋하였기 때문에 비록 慶序를 主張하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鄭玄注에 没入하게 되었다하고 原始의 禮樂關係에서 벗어나서 詩經을 解釋해야 한다고 強調한다.

元・明代에 이르러서는 詩經研究가 적었던 것은 아니나 宋代와 같이 크게 活潑하지는 못하다. 이미 上述한 바 있드시 朱熹의 詩集傳이 通行本으로 行世하고 있었으므로 宋代의 議論이 延長되는 樣態였다.

(4) 清代諸說

清代는 學術活動이 매우 活潑하던 時代이다. 특히 清代는 疑古의 學風이 盛行하여 宋代學術에 對해 反撥하는 氣風이 風靡하여 詩經研究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爭論이 檳頻되고 있다。清代의 詩經學은 그 樣相이 크게 세 가지로 分類된다. 첫째는 毛傳鄭箋을 追從하는 守舊派와 둘째로는 三家詩派. 셋째는 慶序派이다.

첫번째의 守舊派는 朱熹의 詩集傳에 反撥하여 詩經을 漢代의 毛傳鄭箋으로 回復시키려는 學派로 陳啓源(毛詩稽古篇)·閻若璩(毛朱詩說)·毛奇齡(白鷺洲主客談詩)·陳奐(毛氏傳疏)·戴震(毛鄭詩考正), 馬瑞辰(毛詩傳箋通釋)等을 代表적으로 들 수 있다.

陳啓源(字·長發, 康熙時 1662~1722 諸生)은 毛詩稽古篇 卷二十五 署要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孟子所論讀詩之法，共要不外二端，一曰：誦其詩不知其人可乎？是以論其世。一曰：說詩者不以文害

詞，不以詞害意。然則學詩者必先知詩人生何時，事何君，且感何事而作詩，然後其詩可讀也。誠欲如此，舍小序，奚由入哉？……古國史之官早慮及此，故詩所不載者，則載之於序。其曰：王某公某人者是代詩人著其也。其曰：某之德某之化，美何人，刺何人者是代詩人白其意也。既知其世又得其意，因執以讀其詩，譬猶秉燭而求物於暗室中，百不失一矣。故有詩必不可以無序也。舍序而言詩，此孟子所謂害意者也。不知人不論世者也，不如不讀詩之愈也。

陳啓源은 詩序를 強力하게 擁護한다. 그는 詩를 언제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왜 著作했는지를 모르고는 그 詩를 理解할 수 없으므로 詩序가 없이 어떻게 詩經을 理解할 수 있느냐고 한다. 그는 詩序가 누가 어떤 德化를 하고 누구를 讀美하고 누구를 諷刺했는가를 詩人을 대신하여 쓴 것을 옛 國史들이 後世의 讀者들을 為해 載錄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詩序를 가리켜 어두운 暗室에서 물건을 찾는데 촛불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詩에 詩序가 없어서는 絶對로 안된다고 한다. 또 詩序를懷疑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若必求其證驗的切，別見他書史而後信之，則詩序與他書史皆秦以前文字，而漢世諸儒傳之者也，安見他書史可信而詩序獨不可信乎？

그는 詩序를 秦代以前의 것으로 看做하고는 다른 先秦典籍은 믿으면서 왜 詩序는 못믿는다는 것인가？ 詩序도 漢儒가 傳한 것이니 믿어야한다고 主張한다. 또 詩序의 著者에 대하여：

其篇義則有大小序，又子夏之徒爲之也，繼之則有詁訓傳而兩毛公，亦六國及先漢時人也。

그는 大小序는 子夏가 지었고，詁訓하고 傳한 것은 두 毛公이 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鄭玄의 說을 追從한 것이다. 그는 詩序가 先秦代에 著述되었다는 成見를 가지고 詩序를 대하고 있다. 또 그는 두 毛公 즉 大毛公인 毛亨은 戰國末 六國時代의 人物이고 小毛公인 毛萇은 前漢代 人物이라고 主張한다. 그의 論據가 무엇인지 明確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의 主張을 따를다면 毛詩傳은 秦火以前에 이미 行世하였다는 結論이 된다.

陳奐(碩甫 1786~1844)은 詩毛氏傳疏에서 詩序와 著者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總論關雎論語八佾篇云：關雎樂而不淫哀而不傷，此孔子論詩釋關雎之意，而子夏作序之所本也。毛公之學出自子夏，故傳與序無不合。釋文沈重云：鄭詩譜意大序是子夏作，小序是子夏毛公合作。然則毛詩真得聖人之教者矣。

陳奐은 子夏가 孔子의 뜻을 根本으로 詩序를 著述했고 또 毛公의 詩는 子夏에게서 나왔으므로 毛傳과 詩序는 맞지 않는 것이 없으며 毛詩는 聖人의 가르침을 真正으로 體得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또 毛傳은 子夏의 序를 補綴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卜子夏親受業於孔子之門，遂彙括詩人本意，爲三百十一篇作序，數傳至六國時，毛公依序作傳，序意有不盡者，傳乃補綴之。

陳奐은 孔子에게서 詩를 傳授받은 子夏가 詩序를 지었으며 毛公이 이에 依해 傳을 지었다고 하며 그의 傳은 序意의 不盡한 것을 補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陳奐의 이러한 說은 결코 信憑性을 주지 못한다. 民國人 魏佩蘭은 毛詩序傳違異考에서 詩序와 毛傳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抽出하고 있다. 이에 몇 가지를 例擧한다.

葛覃 :

序云 · 后妃之本也，在父母家，則志於女功之事。

傳云：大夫命婦成祭服，士妻朝服，庶士以下各衣其夫，……父母在則有時歸寧耳。

……蓋前者(序)是指女子未嫁之日而言，後者(傳)則指既嫁之後，在夫家而言，兩者意義與所言範圍是根本不相同。

葛覃을 序에서는 未婚女가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라 하고，傳에서는 既婚女가 시집에서 일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라 하여 뜻이 전혀相反되고 있다.

鵲巢

序云 · 夫人之德也，國君積行累功，以致爵位，夫人起家而居有之，德如鵲鳩，乃可以配焉。

傳云 · 鵬鳩不自爲巢，居鵲之成巢。

……按傳詮詩，其理直而當，序乃迂迴曲折之，以強納詩意於「夫人」·「國君」之身，其與毛傳違異，固已甚明，而尤使詩旨晦澁難通之。

序는 詩의 內容과는 懸隔한 差異가 있다. 魏佩蘭은 本考에서 序와 傳이 相違한 것을 무려 二十二篇이나 例示하고 있다. 이로 보아 陳奐의 「毛公依序作傳，序意有不盡者，傳乃補綴之」는 成立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의 子夏作序說까지도 疑心을 받게 된다.

두번째，三家詩派는 첫번째의 守舊派보다 한 발 더 漸及하여 毛詩에 滿足하지 않고，齊·魯·韓三家詩에서 詩經의 眞意를 求하려는 學派들이다. 代表的인 學者들로는 魏源(詩古微)·陳喬樅(三家詩遺說考)·龔橙(詩本詮)·皮錫瑞(詩經通論)，王先謙(詩三家集疏)等이다. 비록 三家詩가 散佚되어 殘缺篇이 많지 않아 詩經研究에 多大한 影響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三家詩를 穿鑿하여 詩意를 把握하려는 그들의 精神은 훌륭한 것이다.

魏源(默深 1794~1856)은 詩古微에서 毛詩序의 著者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惟後漢書稱衛宏作毛詩序，善得風雅之旨，而成伯璵因以今序首語次語爲別，則今序首句與笙詩例者毛公師授之義，其下推衍附益者，衛宏所續之序明矣。

魏源은 詩序의 首句와 笙詩라고 한 亡佚된 詩 六首의 序는 毛公이 그의 스승에게서 傳授받은 것을 記錄한 것이라고 그 以下の 序文은 毛公이 쓴 詩序의 首句에 대하여 衛宏이 推衍附益한 것이라고 한다. 成伯璵가 初句는 子夏가 쓰고 그 뒷 부분은 毛公이 詩中の 뜻을 敷衍한 것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毛公과 衛宏의 合作이라 하여 成伯璵와는 두 사람이 썼다는 것에는 뜻을 함께 하면서 著者에 대하여는 異見을 提示하고 있다.

清末의 皮錫瑞(鹿門)는 詩經通論에서 :

毛序本不知出自何人，或以爲本之子夏，或以爲續於衛宏，皆無明文可據，即以衛宏續作，亦在鄭君之前，學者當崇爲古義，不必爭論何人也。

皮錫瑞는 毛詩序가 누구의 著作인지 알 수 없으며，或者는 子夏가 著述하고 或者는 衛宏이 繼述하였다고 하나 모두 明確한 根據가 없다고 하였다。그는 後漢書나 隋書等 史書조차도 無視하는 態度를 취하고 있다。그는 三家詩派의 한 사람으로 毛詩自體를 無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學者들은 바탕히 古義를 崇尚해야 함으로 毛詩序를 누가 著述하였건 爭論할 必要조차 없다고 한다。이러한 皮錫瑞의 毛詩觀은 問題點이 있다。古義를 崇尚하여야 한다면 과연 三家詩가 어느만큼 詩本然의 意義를 지니고 있는지 또 毛詩가 비록 늦게 出現되기는 하였으나 毛詩가 三家詩보다 얼마나 늦게 撰述되었다고 斷定하는건지 疑問이 가지 않을 수 없다。三家詩가 毛詩보다 일찍 出現하였다고 하여 三家詩를 古義로 看做하고 三家詩만이 詩의 本意라는 것은 强辯이다。그것은 三家詩相互間에도 큰 乖戾가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의 廢序派는 清代 詩經學界에서 가장 注目되는 學派이다。이들이 共同으로 標榜한 것은 詩經注解에서 禮教를 排除하고 先秦典籍에 依하여 詩人の 本意를 追求한다는 것이다。따라서 그들은 毛傳鄭箋을 排擊하고 또 詩集傳, 三家詩說等 모든 舊說을 排擊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觀點으로 詩經을 考究한다。代表的인 學者로는 姚際恒을 筆頭로 方玉潤, 崔述等을 들 수 있다。

清代에 이러한 研究方法을 最初로 開陳한 사람은 姚際恒(立方, 1647~?)이다。그는 詩經通論·詩經論旨에서 詩序와 著者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詩序者，後漢書云：「衛宏從謝曼卿受學，作毛詩序」是東漢衛宏作也。舊傳爲子夏作。宋初歐陽文叔，蘇子由輩皆信之；不信者始晁說之。其後朱仲晦作辯說，極意詆毀，使序幾無生活處。馬貴與忽吹已冷之鑑，又復尊崇，至謂有詩即有序，序在夫子之前。此本王介甫以有序者存之，無者刪之，凡數千言。無識妄談，不顧世駭。

姚際恒은 詩序의 著者를 後漢 衛宏으로 斷定한다。그는 朱熹가 詩序를 排斥하여 거이 蘇生할 수 없게 하였는데 宋末의 馬端臨(字貴與)이 다시 詩序를 尊崇하여 이르기를：詩가 있으면 序가 있게 마련이고，그것은 孔子以前부터 있었고，序가 있는 詩는 남겨두고 序가 없는 것은 모두 刪除하였으니 그것이 數千言이나 되었다고 無識한 妄談을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또 그는 古今僞書考에서 詩序가 子夏나 毛公의 著作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其謂子夏作者，徒以孔子有起予者商也一語，此明係附會，絕不可信。謂毛公作者亦妄也。毛公作傳，何嘗作序乎？鄭玄又謂詩序本一篇，毛公始分，以置諸篇之首，則亦信序，而爲此說未必然也。世又謂大序自是宏爲之，小序則係古序。案漢世未有引序一語，魏世始引之，及梁蕭統文選直以爲子夏作，因承前

人之訛也 鄭玄且以小序爲孔子作，王安石且以小序爲詩人自製，益可笑矣。大抵小序皆出于東漢范曄既明指衛宏，自必不謬。其大序固宏爲之，小序亦必漢人所爲，何以知之？序于周頌潛詩曰：「季冬獻魚，春獻鮒」全本月令之文，故知爲漢人也。

詩序가 子夏의 著作이라는 說이 나온 것은 論語의 「起予者商也」¹¹⁾라고 한 한 마디를 附會하여 마치 孔子가 子夏에게 詩經을 傳授한 것 같이 云謂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밀을 수 없는 것이고 또 毛公은 傳만 지었지 序를 지었다고 한 事實이 없다。詩序가 원래 一篇이었는데 毛公이 나누어 各篇의 첫머리에 두었다고 鄭玄이 論述했는데 이것도 밀을 수가 없다。또 大序는 衛宏이 짓고 小序는 秦漢以前의 古序라고 하나 漢代에 詩序를 引用한 것이 한 마디도 없으며 詩序의 引用은 魏代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 東漢의 衛宏이 지은 것이 틀림 없다。또 周頌 潛詩序에 「한 겨울에 물고기를 받치고 봄에는 상어를 받친다.」고 있는데 이것은 漢代의 月令에 나오는 글이니 이로 보아 詩序가 漢代인의 作임이 틀림없다고 한다. 그는 또 朱憲의 詩集傳을 詩經通論에서 다음과 같이 酷評하고 있다。

愚謂邊序者莫若集傳，蓋深刺其隱也。要而論之，集傳只是反序中諸詩爲淫詩一著耳，其他更無勝序處。夫兩書角立，互有得失，則可並存；今如此，則詩序固當存，集傳直可廢也。

集傳만큼 詩序를 追從한 것이 없으며 다만 詩序와 反하는 것은 여러 詩가 淫詩라는 것을 認定한 것 뿐으로 詩序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는 없다. 지금 兩書가 각기 得失이 있어 並存하고 있으나 이제 詩序는 남기드라도 集傳은 廢해야한다고 그는 集傳을 酷毒하게 批難한다. 그는 詩經研究의 基本態度는 「禮」에서 떠나 考究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詩經通論에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人言鄭康成長于禮，康成苟真長於禮，必不以禮議詩矣。

說詩必不可以據禮，集傳常蹈此病。

또 朱憲의 集傳이 詩序의 範圍에서 逸脫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禮」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誤謬를 犯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姚際恒의 이런 自信感에 넘친 豪言에도 不顧하고 그의 說도 결국 後世 學者들에 의해 詩集傳보다는 進一步하였을뿐 完全히 詩序에서 逸脫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批難을 빙기며 이른다.

何定生은 關於詩經通論¹²⁾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誤謬을 指摘하고 있다.

姚氏想徹底，他罵集傳「俟序」，這也的確，集傳有許多從序說的，集傳明從序，姚明駁它；集傳暗合序，姚氏暗譏它。但姚氏自己也仍然用序說，例如曹風蜉蝣篇，序明謂「刺奢也 昭公國小迫……好奢而近

11) 論語 八佾篇：『子夏問曰：「巧笑倩兮，美目盼兮，素以爲絢兮，」何謂也？子曰：「繪事後素。」曰：「禮後乎？」子曰：「起予者商也。始可與言詩已矣。』』

12) 何定生，詩經今論卷二 詩經的復始問題

小人。」姚氏去「奢」字而引爲：「大序謂刺昭公，而論之曰：『第以下篇刺共公，此在共公前也。或謂刺共公，或謂刺曹霸，皆臆測。』然後自斷曰：『大抵是曹君奢慢，愛國之詞也。』」明明偷了序的「奢」字，又周頌小毖篇，他說：「小序謂嗣王求助，集傳謂亦訪落之意，皆近混。」案集傳訪落云：「成王以道延訪羣臣之意。」而姚氏云：「此其王旣誅管，蔡之後，自懲以求助羣臣之詩。」明明用序，且兼取集傳！這是姚氏暗用序處，其明用序處，更不勝枚舉了。」

何定生은 姚際恒이 비록 集傳이 詩序를 排擊한다하면서 詩序에 暗合하고 있다고 批難하면서도 그自身이 도리혀 詩序를 採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例로 曹風의 蟬鳴篇과 周頌의 小毖篇等을 들고있다. 비록 何定生이 그가 詩序에서 完全히 逸脫하지 못하고 있다고 批難하기는 하나 詩序의 範圍에서 그만큼 逸脫한 從來의 註解는 없었다. 다만 姚際恒自身이 詩集傳을 그토록 排擊하면서 無意識中에 詩序의 影響을 받고 있은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漢代以後一千五百餘年間 傳承되어 온 詩序가 學者들의 腦裡에 얼마나 甚大한 影響을 끼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方玉潤(文石, 1811~1883)은 詩經原始自序에서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理由를 다음과 같이 披瀝하고 있다.

迨秦火既烈而僞序始出，託名子夏，又曰孔子，唐以前，尙無異議，宋以後始有疑者。歐陽氏鄭氏駁之於朱晦翁辯之於後，而其學遂微，然而朱雖駁序，朱亦未能出序範圍也。……故前之宗朱以故序者，今盡背朱而從序，輾轉相循。……愚少時讀詩，至此未嘗不掩卷三嘆，徒歎憾於尼山正樂時也，最後得姚氏際恒通論一書讀之，亦既繁徵遠，引辯論於序傳二者之間，頗有領悟十得二三矣。而剖抉末精立論，未允識微力淺義少辯多，亦不足以鍼盲而起廢，乃不揣固陋，反覆涵泳參論其間，務求得古人作詩本意，而止不顧序，不顧傳，亦不顧論，唯其是者從，而非者正，名之曰原始，蓋欲原始人始意也。

方玉潤도 역시 朱惠의 詩集傳이 詩序의 範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批難하고 또 姚際恒의 詩經通論을 보고는 그것도 内容이 繁多하고 徵遠하며 序傳에서 辯論을 이끌어내고 있을뿐 詩意는 不確實하므로 古人이 作詩한 本意를 求하기 위하여 不顧序，不顧傳，不顧詩經通論하고 오직 詩만을 爲主로 註解한다고 한다.

그는 또 詩序에 대하여는 詩經原始，卷首上 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詩必有題，題必有序，此定例也。今三百旣無題，復無序。而世所傳大小序，又皆衛宏所託未可據，以爲信不得已，而考諸載籍求其可以爲詩序者，亦屬寥寥無幾。姚氏云：鶡鴣之爲周公貽王，見于書。戴馳之爲許穆夫人，碩人之爲美莊姜，清人之爲惡高克，黃鳥之爲殉秦穆，見于左傳。時邁思文之爲周公作，見于國語。若此者眞詩之序也，惜其他不盡然。

方玉潤은 世間에서 詩序를 衛宏이 지었다고 하나 根據가 없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고 詩序의 著者가 누구인지는 거이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姚際恒이 先秦典籍에 依하여 數篇의 詩의 作者를 考證하고 있는데 그것이 補된 詩序이고 其他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고 한다. 그는 先秦古籍에서 詩의 著者나 本事를 밝혀내는 것이 詩의 补된 序라고 한다.

이는 姚際恒과 같은 意見이다. 그러나 그 역시 姚際恒을 批難하면서도 姚際恒과 같은 誤謬를 犯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何寃生은 清儒對於詩經的見解¹³⁾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他(方玉潤)以關雎爲民間歌詠，非宮闈之詩。他說：「此詩蓋周邑之咏初昏者，故以爲房中之樂，用之鄉人，用之邦國而無不宜焉。」話雖如此，但他究竟仍脫離不了詩序的影響。因此他又說：「然非文王太姒之德之盛，有以化民成俗，使之咸歸於正，則民間歌謡，亦何從而得此中正和平之音耶？聖人取之以冠三百篇首，非獨以其爲夫婦之始，可以風天下而厚人倫也；蓋將見周家發祥之兆，未嘗不自宮闈始耳。故讀是詩者，以爲咏文王，大姒也可，即以爲文王太姒之德及民，而因以成此治風也亦無不可。何必定考其爲誰氏作歟？」……雖然如此，但方氏終亦無以易其爲文王時詩的思想，則方姚之於漢儒間，也不過五十步之與百步了。

그는 方玉潤이 關雎를 民間의 歌詠이고 宮闈之詩는 아니며 周邑의 初婚者가 新婚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라 하면서 이 詩가 文王時代의 作品이라는 것을 排除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詩序의 影響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方玉潤이나 姚際恒의 說은 漢代 儒家에 比하여 五十步百步에 지나지 않는다고 批評하고 있다.

清代 詩經研究家中에서 가장 特出한 人物은 崔述(東壁 1740~1866)이다. 그는 毛傳鄭箋 및 詩序등 舊說을 完全히 排除하고 歷史的인 觀念으로 詩를 討究하고 있다. 그는 從來 學者들이 先秦古籍인 尚書, 左傳, 國語等의 典籍에서 詩經과 連關되는 語彙를 抽出하여서는 이를 禮教에 附會시켜 解釋하면 誤謬를 拂拭하고 禮教의 传统觀念에서 逸脫한 歷史의 传统觀點에서 詩經의 本意를 究明하기에 努力한다. 그는 詩序를 排除하였으므로 美刺說, 正變說等도 完全히 排除한다.

詩序의 著者에 대하여 讀風偶識 卷一 通論詩序에서 다음과 같이 論及하고 있다.

一 詩序乃後漢衛宏作。唐人舊說以爲子夏毛公所作。沈重云『案鄭詩譜，大序是子夏作，小序是子夏毛公合作。卜商意有不盡，毛更足成之。』此說非也。何者？史記作時，毛詩未出。漢書始稱毛詩，然無作序之文。惟後漢書儒林傳稱：「謝曼卿善毛詩，乃爲其訓。宏從曼卿受學，因作毛詩序，善得風雅之旨；於今傳於世。」則序爲宏作所顯然無疑。其稱子夏毛公作者，特後人猜度言之，非果有所據也。記曰：「無徵不信，不信民弗從」，今衛宏作詩序現有後漢書明文可據。如謂爲子夏毛公所作，則史漢傳記從無一言及之。不知說者何以不從其有徵者而惟無徵之言之是從也？

崔述은 詩序의 著者를 後漢 衛宏이라고 斷定한다. 그는 鄭玄의 大序는 子夏의 作이고 小序는 子夏와 毛公의 合作이라는 說은 잘못된 것이라 하고는 그 論據로；史記에는 毛詩라는 言及이 없다가 漢書에서 처음으로 毛詩라는 것이 言及되었으나 詩序는 言及되지 않았으며 後漢書에 와서야 처음으로 詩序와 著者가 言及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後漢 衛宏이 지었음은 의심할 餘地가 없다고 한다. 그는 史書인 後漢書에 明確한 根據가 있으므로 이것이 바

13) 上揭書。

로 論證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詩序가 子夏의 作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一. 孔子魯人也。孔子既沒，七十子之徒相與教授於齊魯之間，故漢初傳經者多齊魯之儒，子夏雖嘗教授西河，然究在魯爲多。觀戴記所言多在魯之事，而論語稱子游譏子夏之門人，子夏之門人間交於子張，則子夏之門人在魯者不乏矣。齊魯既傳其詩，亦必並傳其序。何以齊魯家之詩均不知有此序而獨趙人乃得之乎？蓋自毛公以後傳其說者遞相增益相附會，宏聞之於師，遂取而著之序耳。而後之人乃奉序爲不刊之典，其亦可嘆也夫！

「孔子는 魯나라 사람이다.孔子가 죽자 七十弟子들이 齊魯의 兩國에서 스승의 學問을 教授하였기 때문에 漢初에 齊魯間에 儒者가 많았다. 子夏는 비록 西河에서 教授하였으나 거이 魯나라에 살고 있었으니 戴記에 그가 魯나라에 있었던 일을 記述한 것이 많으며, 또 論語에도 子夏의 門人們이 魯에 있었음을 言及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門人们이 魯에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齊魯 兩國에 詩가 傳하여 졌다면 반드시 序도 傳하여 졌을 것인데 齊魯의 詩에는 序를 말하지 않고 趙나라 사람만이 詩序를 업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아마도 毛公以後 그것을 解說하는 著들이 潤益하고 附會하여 오던것을 衛宏이 스승에게서 傳授받아 詩序를 지었을 것이다. 後人们이 序를 尊奉하여 不刊之典으로 삼았으니 可嘆할 일이다.」

또 孔子나 國史의 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一. 以序爲子夏毛公所作，固已不可信矣。尤可怪者，宋程子以大序爲孔子所作，小序爲當時國史所作。夫論語所載孔子論詩之言多矣，若關雎章，思無邪章，誦三百，以及與觀羣怨，周南召南等章，莫不言簡意該，義深詞潔。而詩序獨平行淺弱，雖有精粹之言，亦多支蔓之語，絕與論語之言不類，豈得強屬之於孔子！至於各篇之序失詩意者甚多，其文亦殊不類三代之文，況變風多在春秋之世，當時王室微弱，太史何嘗有至列國而採風者，春秋經傳概可見也，以爲太史所題，誣矣！

「序를 子夏와 毛公의 作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더욱이 程子가 大序는孔子가 짓고 小序는當時의 國史가 지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論語에孔子가 論詩한 것이 많은데 그것들은 言簡意該하고 義深詞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詩序는 平行淺弱하고 비록 精粹之言이 있다고 해도 군더더기의 말이 많으니 절대로 論語의 言語와는 다르다. 어찌 억지로孔子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각篇의 序에 詩意를 읽은 것이 심히 많으니 그 文章은 三代의 文章이 아니다. 더욱이 變風이 대부분 春秋之世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王室이 微弱하였으니 太史가 어떻게 列國에 가서 採風을 하였겠는가? 春秋經傳을 보면 알 수 있으니 太史가 지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上述한 바와 같이 崔述은 詩序의 著者를 先秦典藉과 史書를 通하여 史的인 觀點에서 立證하고 있다. 또 그는 舊說을 排除하고 詩意를 詩詞에서 求하기에 힘쓴다. 그가 詩解한 狹度를 例舉한다.

葛覃

此篇據毛鄭說，以爲后妃在父母家女功之事。「言告言歸」謂將嫁，「汚私」，「韞衣」謂師氏告以適人之道。既於文義牽強，而與下「歸寧父母」之文亦相悖。且謂「葛施」喻形體之長大，「葉萋」喻容色之美盛，其義尤爲不倫。……此篇本爲歸寧而作，然不逮言歸寧，先言葛葉之生，時鳥之變，感物思親，此其時矣。

上述한 例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崔述은 舊說이나 禮教에서 逸脫하여 詩詞중에서 詩의 本意를 求하고 있다.

梁啓超(卓如 1873~1934)는 古書真僞及其年代에서 詩序의 著者를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兩漢儒者說詩，從沒有提到有詩序，六經奧論說：「漢氏文字未有引詩序者，惟魏黃初四年有『曹共公遠君子，近小人』之語。蓋詩序至是而始行。」王先謙反駁這說。說左傳襄公二十九年，服虔解誼，太尉楊震疏，李尤漏刻銘，蔡邕獨斷，都已引用詩序。何嘗至黃初時始行呢？其實據我們看，那是不成問題的。左傳和詩序相同的只有「美哉此之謂夏聲」一句，那當然或是偶然，或是衛宏有意抄襲，西漢一代文字無有引用詩序的，也沒說詩有序，服楊李蔡固然是東漢儒者，但都在衛宏稍後，衛宏著的詩序，他們自然可以看到，後漢既然明說衛宏作毛詩序，我們又何苦奪他的功呢？

梁啓超는 詩序의 著者는 後漢書에 明記되어 있는 衛宏이라고 한다. 그는 六經奧論에 記載하기를：「漢代 文章에는 詩序를 引用한 것이 없고 黃初四年條¹⁴⁾에 詩序의 一句를 引用한 것이 있는데 詩序가 引用되기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하였는데 王先謙이 이를 反駁하여 말하기를：左傳 襄公二十九年條의 服虔의 解誼，太尉楊震의 疏，李尤의 漏刻銘，蔡邕의 獨斷等，漢代人の 文章에 詩序가 引用되어 있는데 黃初四年條에 처음 引用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左傳의 句節은 偶然이거나 衛宏이 自意로 抄襲한 것이고 또 服虔，楊震，李尤，蔡邕은 衛宏보다는 後世사람들이므로 詩序를 引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5. 民國代諸說

中華民國이 建立되고 詩經研究는 1920年代부터 다시 活潑이 展開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詩經에 만限한 것이 아니고 古史問題를 現代의인 眼目으로 再檢討하고자한 作業에서 시작되는데 특히 詩經에 대한 새로운 研究가 매우 活潑히 展開된다。 그 中心人物로는 胡適과 그의 弟子 顧頽剛이 고 鄭振鐸，張壽林，何定生，俞平伯，周作人，錢玄同，董作賓等이 參加하여 詩經에 대하여 討究하고 이들의 論文을 모아 古史辨¹⁵⁾에 둑어내고 있다.勿論 이들이 現代 中國 詩經學을 代表하는 人物들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으나 民國以後 詩經學의 큰 물결로 認知되고 있어, 이들의 論文中 詩序에 關한 것들을 引用하여 現代의 詩經學에서 詩序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現代 學者들의 詩經研究에서 注目되는 것은 「文

14) 三國志·魏志 文帝紀 黃初四年：「夏五月，有鶢鶩鳥集靈芝池，詔曰：『此詩人所謂汚澤也。曹詩『刺恭公遠君子，近小人』，今豈有賢智之士處於下位也？』」

15) 臺灣明倫出版社刊行，全八冊

學」이라는 用語의 使用이다. 顧頡剛은 詩經在春秋戰國間的地位에서 다음과 같이 詩經學의 方向을 論及하고 있다.

詩經是一部文學書，這句話對現在的人說，自然是沒有一個人不承認的。我們既知道牠是一部文學書，就應該用文學的眼光去批評牠，用文學書的慣例去注釋牠，才是正辨。不過我們要說「詩經是一部文學書」一句話很容易，而要實做批評和注釋的事卻難之又難。這為什麼？因為二千年來的詩學專家闖得太不成樣子了，牠的真相全給這一輩人弄糊塗了。

詩經을 歷史의 인 觀點에서 討究하던 清代의 一部 學者들에 이어，現代에 와서는 文學의 인 觀點에서 研究되어야하는 時代로 轉移되었음을 示唆한 것이다.

鄭振鐸은 讀毛詩序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毛詩序最大的壞處，就在於他的附會詩意穿鑿不通。毛詩凡三百十一篇，篇各有詩，除六笙詩亡其辭，我們不能決定詩序的是非外。其餘三百五篇之序，幾乎百分之九十以上是附會的，是與詩意相違背的。……所以我們十分確信的說：詩序之說如不掃除，詩經之真面目便永不可得見。……

後漢書儒林傳裡明明白白的說：「衛宏從謝曼卿受學，作毛詩序，善得風雅之旨，至今傳於世。」范蔚宗離衛敬仲未遠，所說想不至無據。且即使說詩序不是衛宏作，而其作者也決不會在毛公衛宏以前。

鄭振鐸은 毛詩序의 百分之九十以上이 詩의 本意와는 違背되는 것이므로 詩序를 掃除하지 않고는 詩經의 真意는 영원히 解得할 수 없게 된다。詩序의 著者は 後漢書에 明白히 記載되어 있드시 衛宏이며 가령 衛宏이 아니라 하드라도 결코 漢代以前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顧頡剛은 毛詩序之背景與旨趣¹⁶⁾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詩序者，東漢初衛宏所作，明著于後漢書。當東漢之時，左傳已行矣，故顏人·戴馳·清人·新台諸篇之義悉取于左傳，史記亦已行矣，故秦·陳·曹諸國風詩得以史記所載之世系立說，著檜，魏等風，無復可以依傍者，遂惟有懸空立說而不指實其詩中之人。

顧頡剛은 詩序는 衛宏의 作이라하고當時에는 이미 史記와 左傳이 行世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衛宏이 史記나 左傳에서 詩篇의 뜻을 取하고，依傍할 것이 없는 詩는 멋대로 立說했다고 한다.

· 劉大杰은 中國文學發展史，周詩發展的趨勢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到了東漢儒家思想在學術界成了權威的時候，就產生了衛宏的詩序。後漢書儒林傳裏說……在這裏，把詩序的作者時代及主旨，都說得非常明白，本來是什麼問題也沒有的。而後代儒家要故意擡高詩序的地位，也就是要擡高詩經在經典中的地位。於是發生什麼大序是孔子所作，又有什麼是卜商毛亨合作的種種謬說了。到了現在，幾乎人人都知道這種騙局，連說明的必要也是沒有了的。然而在過去二千年中，詩經的價值與意義，全包含在詩序裏面，詩經本身的文學價值，却完全降為詩序的附庸的事，我們是必得注意。

劉大杰은 後漢書에 詩序의 著者は 衛宏이라고 明白히 著錄되어 있음에도 後代 儒家들이

16) 國立中山大學語言歷史學研究所週刊，第十集，第一百二十期，1930年 2月 16日刊。

詩序의 地位를 高揚하기 爲하여 여러가지 謬說을 開陳하고 이로 말미암아 詩經의 文學的 價値는 完全히 消滅되였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見解는 詩經을 文學的인 觀點에서 理解하려는 現代 學者들의 共同된 論述이다.

胡樸安은 詩經學에서 다음과 같이 論及한다.

孔門弟子，傳六經之學者，厥惟子夏。詩序雖非子夏自作，必生自子夏，可斷言也。經師所傳，容有出入，故毛魯有詳略，韓毛有異同。毛既祖述子夏之遺說，其後如衛宏等又復增續之，故詩義與傳義又有不相應者。以是知毛詩之序，淵源於子夏，敘錄於毛公，增益於衛宏等。鄭康成詩譜，王肅家語注，後漢書儒林傳之說，皆有可信；不過各擧其一，未能合而言之耳。

胡樸安은 現代學者中에서도 子夏作詩序說에 戀戀하는 사람이다. 그는 詩序를 비록 子夏가 著作하지 않았다하드라도 그를 淵源으로 나온 것이며 毛詩序와 魯詩序가 詳略이 있고 韓詩序와 毛詩序에 異同이 있음은 傳授되는 사이에 發生한 出入이다. 毛詩序는 子夏에서 淵源되고 毛公이 敘錄하고 衛宏이 增益하였으며 鄭玄의 詩譜, 王肅의 家語注, 後漢書儒林傳의 說이 모두 옳으나 그것들이 각기 한 가지씩만을 들고 모두를 말하지 못하였을뿐이라고 한다. 胡樸安의 이러한 說을 詳細히 檢討하여 보면 詩序는 子夏가 著作한 것이라고 強調하고 싶으나 明確한 根據가 없어 이 說도 옳고 저 說도 옳으나 역시 詩序는 子夏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强辯하고 있는 內容이다.

屈萬里教授는 詩經釋義에서 :「詩序究竟是什麼人作者。到現在還沒有定論。」¹⁶⁾라고 明確한 言及을 避하고 있으나 古藉導讀에서는 다음과 같이 論及하고 있다.

至於詩序作者，說者紛紜。大抵詩序首句 及其下申說之語，殆非出於一手。自宋以來，學者或據後漢書儒林傳，以為申說之語，出於衛宏，似乎可信。至其首句是否出於毛公，則尚待考定也。

屈教授는 詩序의 著者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言及하고 있다. 그가 犷謬하는 가장 큰 理由는 詩序의 初句와 다음 句가 한 사람의 著作이 아닌 것 같다는 것에서 緣由되는 것 같다. 首句以下の 申說之語는 衛宏이 지은 것 같다고 매우 消極的인 言及을 한 것은 慎重을 期하는 것이라.

東柱環師는 中國詩論，毛詩序에서 그것의 著者를 다음과 같이 論述했다.

毛詩大，小序의 作者에 관해시도 諸說이 紛紜하다 子夏가 詩序를 지었다고도하나，陸璣의 毛詩草木鳥獸蟲魚疏와 後漢書 儒林傳에는 東漢初의 經學者인 衛宏이 毛詩序를 지었다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어 子夏作序說은 信憑性이 회박하다. 그렇기는 하나 衛宏이 子夏以來에 傳承되어오던 毛詩序의 뜻을 지금 傳해지는 형태로 文字로 定着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車教授의 이러한 見解는 매우 妥當한 것이다.

近人 王大韜은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¹⁷⁾

17) 魏佩蘭著 毛詩序傳違異考에서 引用.

史記, 荀卿列傳 : 「孟軻鄒人也, 受業於子思之門人……遊事齊宣王, 宣王不能用, 退而與萬章之徒序詩書, 詳述仲尼之意.」……詩序的文法多與孟子相同.

王大韜는 매우 特異한 論據를 提示하고 있다. 史記荀卿列傳에 「與萬章之徒序詩書」라고 史書에 明確하게 記載되어 있고 孟子書의 文章과 그 文法이 詩序와 비슷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 詩序는 孟子의 著作이라고 한다.

以上은 歷代 諸家의 詩序著者說의 略述이다. 諸說을 綜合 檢討하여 보면 다음 十四種으로 分類된다.

1. 子夏作, 小序毛公增益(鄭玄說)
2. 衛宏作(後漢書說)
3. 子夏裁初句, 以下大毛公作(成伯璵說)
4. 子夏創, 毛公, 衛宏潤益(隋書經籍志說)
5. 漢代學者作(韓愈說)
6. 太師作(歐陽修說)
7. 詩人自作(王安石說)
8. 大序孔子作, 小序國史作(程頤說)
9. 衛宏集錄毛氏之學(蘇轍說)
10. 首句孔子作, 其下毛公發明之(王得臣說)
11. 村野妄人作(鄭樵說)
12. 山東學究者作(朱熹說)
13. 毛公門人記其師說, 衛宏集錄, 後人又增加(曹粹中說)
14. 孟子作(王大韜說)

上述한 諸說中 「孔子作詩序說」은 아무런 證據도 없으며 다만 儒家의 「非門弟子所能與也」라는 孔子尊崇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또 「孟子說」은 王大韜氏가 史記를 誤譯하고 있다. 「序詩書」는 결코 孟子가 詩經과 書經의 序를 著述했다는 뜻이 아니다. 또 書經序를 孟子가 著述했다는 說도 없거니와 孟子書도 孟子本人이 執筆한 것은 결코 아니다. 「詩人自作說」은 晉公武가 이를 反駁하여 論議의 餘地가 없다. 「太師作說」도 역시 確證할 根據가 전혀 없다. 또 「村野妄人作說」과 「山東學究者作說」은 단순히 詩序를 颠倒한 것이지 어느 特定人에 對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問題視되는 것은 「子夏作說」과 「衛宏作說」이다. 「子夏作序說」은 鄭玄에서 비롯된다. 鄭玄은 後漢末의 大儒家로 毛詩傳에 筵을 써서 漢代에 學官에도 列立되지 못한 毛詩를 後代에 詩經의 代表本으로 이끌어 온 人物이다. 그는 漢代에 儒家의 傳統思想에서 離脫變質되어 가는 經典의 解說을 本軌道에 牽入하는데 努力하였으며 經典을

孔子思想에 附合시키는 데 至 大한 功獻을 이룬 人物이다. 따라서 後世의 儒家들에게는 그만 큼 鄭玄의 說은 絶對的인 影響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詩序의 文章體가 先秦의 文章體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諸家들이 論證한 바가 있다. 故로 「子夏作序詩」을 主張하는 學者들은 모두가 한결 같이 「毛公增益」이니 「衛宏潤益」, 또는 合作이라는 但書를 빼지 않고 붙이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子夏說에 自信感이 없다는 傍證이 된다. 前代 學者들의 子夏說에 대한 反證을 例擧하면 다음과 같다.

1. 詩序의 著者는 詩意는 明確하게 把握하려 하지 않고 篇次에만 盲從하여 篇次의 앞 부분은 聖人治政 時代의 詩라고 하여 모두 美詩로 看做하고 뒷 부분은 亂政時代의 詩라 하여 刺詩로 看做하였다. 孔子에게서 詩를 學習한 子夏가 그러한 脫離은 論述하지 않았을 것이다.
2. 詩序의 內容에 보면 漢代에 行世하던 諸書 즉 左傳, 史記, 禮記, 樂記, 國語, 公孫尼子等에서 雜取하여 附會한 것으로 보아 詩序는 漢代人の 著述이다.
3. 詩序는 결코 毛公의 毛傳以前에 著述된 것이 아니다. 毛公이 詩傳을 著作할 때 詩序가 없었다면 當然히 序에도 解說을 불였을 것이나 毛傳에는 없고 鄭玄의 注만 있다. 이것 은 바로 毛公以後 鄭玄以前에 著作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4. 劉歆의 三統曆에 「文王受命九年而崩」이라는 잘못된 記述이 있다. 詩序의 著者는 이것 을 모르고 詩序에 「文王受命作周」라고 引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의 著者는 劉歆(子駿 B.C. 23卒) 以後 即 後漢代人物이다.
5. 漢代의 諸典藉中에 詩序를 引用한 文章이 없다. 詩序에서 引用했다고 明記되기 시작한 것은 三國志魏書의 黃初四年條에 처음 引用되었다.

以上 子夏說의 反證中에서 論據가 比較的 明確하다고 思料되는 몇 가지를 例擧했다.

衛宏說의 根源은 後漢書儒林傳이다. 後漢書의 撰者 范曄은 衛宏을 列傳에 載錄한 動機가 詩序의 著者라는 단 한 가지 史實에 基因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詩序의 著者라는 것을 알린 것 以外에는 그의 事蹟이 列傳에 登載될 만한 것이 없다. 결코 그는 漢代에 屈指의 大儒家는 못된다. 따라서 衛宏作序說을 否定하는 說의 大部分이 衛宏같이 보잘것 없는 儒者가 어찌 敢히 經典의 序를 著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焦點을 두고 있다. 裴普賢은 詩經研讀指導의 毛詩詩序注에서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范曄不察，取材於陸疏，逕謂宏作毛詩序，後人才以爲毛詩序均爲衛宏所作了。其後隋書經藉志謂詩序子夏所創，毛公敬仲又加潤益，就以其精察校正後漢書之疏漏了。

裴普賢은 范曄이 陸璣의 疏에서 取材하여 衛宏이 作序했다고 하는데 隋書經藉志에 詩序는 子夏가 創作하고 毛公과 敬仲이 潤益했다고 하고 있으니 後漢書를 撰한 范曄이 疏漏한 것으로 後漢書는 校正되어야 한다고 한다. 裴普賢의 上記說은 現代 學者로는 매우 困難한

論法이다. 漢代의 史實을 考究하는데 後漢書는 信憑性이 없고 隋書를 追從한다는 것은 古典藉의 史的考察에 違背되는 態度라하지 않을 수 없다.

詩序의 著者가 衛宏이라고 後漢書에 登載되었어도 大部分의 儒家들은 결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詩序가 詩의 本意와 乖戾되는 點이 數多하자 唐代부터 이에 대한懷疑가 發生하고 宋代에 이르어서는 詩序를 廢棄하는 境地에 까지 이른다. 그러나 唐宋代의 詩序에 대한 怀疑는 결코 詩序를 歷史的 根據나 文學的 觀點에서 理解하려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孔子의 門人인 子夏가 어찌 그렇게 荒唐한 文章을 썼겠는가 하는 것으로, 그것을 詩經에 대한 冒瀆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廢棄하고 새로운 禮教的 觀點에서 注解하려고한 것이다. 衛宏이 詩序의 作者로 斷定되기 시작한 것은 後漢書以後, 清代의 廢序派學者인 姚際恒과 崔述에서 부터 비롯된다 그들은 歷史的인 眼目에서 史書인 後漢書라는 史的 記錄을 土臺로 立證하고 있다. 勿論 衛宏같은 無名의 學者가 經典에 序를 著述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後代에 까지 傳來되었다는 것은 保守的인 儒家들에게는 警懾을 禁치못할 大事件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 自身의 思考로 著述하였다가 보다는 先師들의 諸說을 綜合하고 또 當代에 行世하던 儒家書에서 雜取하여 儒家의 傳統思想에 附會시켜 集錄編述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詩序의 內容이 序의 本意와 乖戾되고 謬說이 많다는 것은 그것이 偉大한 儒家가 아닌 無名의 小儒인 衛宏이기 때문에 當然한 것이다.

結論

詩序가 詩經學에 甚大한 影響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漢代以後 二千餘年이 經過하도록 詩序에 對한 論爭이 終熄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現代 많은 學者들은 詩經의 理解에 있어 그 文詞에서 本意만을 取하면 되고 詩序는 마땅히 廢棄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鄭振鐸은 讀毛詩序에서 :「毛詩算是一堆最沈重，最難掃除，而又必須最先掃除的瓦礫。」라 하고, 王靜芝는 詩經 通釋에서 :「詩序之作者爲誰，雖難確定，但於詩之本身尚無重大之關係。」라고 한다. 그러나 反證으로 이든 무엇으로 이든 現代의 詩經研究書에 詩序가 例舉되지 않은 것이 거이 없다. 그것은 詩序가 그만큼 詩經學에 甚大한 影響을 끼치고 있다는 實證이다.

詩序는 과연 어느 時代 누구의 著作인지 關係없이 掃除되어야 할 것인가?

詩經을 古代百姓들의 哀歡과 貴族들의 生活相을 描寫한 純粹文學作品이라는 觀念에서 볼 때 詩經의 本態는 文學作品이며 이에 따라 詩序는 別意味를 갖이지 못한다. 그러나 詩經을 禮教의 教本인 儒家經典의 觀念으로 볼 때 詩序의 影響은 莫大한 것이다. 바로 鄭玄이 衛宏의 詩序를 子夏의 著作이라고 強辯한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漢代는 儒家思想을 正統思想으로 標榜한 時代이다. 그러나 初期의 理念과는 달리 점차 儒家思想에 圖織說이 混入되어 孔子의 正統思想에서 離脱된다. 이런때 詩經界에 衛宏의 詩序가 나오자 三家詩에 食傷한 儒家들에게 正統의 儒家思想에 附會시킨 詩序는 대단한 人氣였을 것이다. 이러한 學界의 反響에 便乘한 것이 바로 鄭玄으로 그는 無名의 儒者인 衛宏이 詩序의 著者라면 그것이 輕視당할까 두려워 子夏의 著作이라 하고 또 漢代에 行世하던 典藉의 雜取가 많아 「小序是子夏毛公合作, 卜商意有未盡, 毛公更足成之」라고苟且하게 但書를 附記하고는 毛傳箋을 著述하고 각篇의 首端에 詩序를 添加한것이라고 본다. 崔述은 다음과 같이 論述한다.

況宏果續前人之序，蔚宗豈得歸功於宏，而謂今所傳者爲宏作乎！然乃爲是說者，無他，皆由尊崇序說太過，惟恐言爲宏作則人輕之而不深信，而無如後漢書明明有宏作序之文。

崔述은 衛宏이 故序를 傳承시키기만 하였다면 後漢書를 撰述한 范曄이 구태어 무엇때문에 그 功을 衛宏에게 돌렸겠느냐고 한다.

論語에 依하면孔子는 이미 詩를 倫理的, 政教的 觀念으로 引用하고 있다. 고로孔子에게서 直接 詩를 學習한 子夏가孔子의 觀念에 따라 詩를 理解하였을 것임은 明若觀火하다. 또 論語八佾篇에孔子와 子夏間에 詩經에 對한 問答이 있고孔子가 子夏에게 詩經을 自身의 뜻에 맞게 理解한것에 滿足을 表하는 文句가 있다. 또 班固의 漢書藝文志에 「自謂子夏所傳」이라는 句節이 있는 것에 着想하여 詩序의 著者를 子夏로 附會시킨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바로 儒家의 正統思想인孔子思想에 詩經을 附合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宋代의 儒家들중 廢序論을 主張하였으면서도 後世學者들에게 詩序의範圍에서 逸脫하지 못했다고 批難을 받는 理由도 바로 그들이 詩經을 본 根本思想이 바로 詩序의 著者와 같이 禮教의 儒家經典이라는 觀點에 基因된다.

存序論과 廢序論은 바로 詩經을 禮教의 觀點에서 理解할 것인가? 또는 文學의 觀點에서 理解할 것인가에 따라 分別되는 議論이다.

詩序의 著者를 究明함은 歷代 詩經學에 있어 어느 時代에 어떤 觀念下에 理解되었는가를 研究하는데 目的과 意義를 둔다.

參 考 文 獻

毛亨傳, 鄭玄箋 毛詩鄭箋三十卷

孔穎達疏 毛詩正義四十卷

歐陽修 詩本義十五卷

鄭樵 詩辨妄二卷(顧韻剛輯佚)

- 王 賢 詩總聞二十卷
- 朱 惠 詩集傳二十卷
- 朱 惠 朱子語錄
- 朱 惠 詩序辨說
- 呂祖謙 呂氏家塾讀詩記三十二卷
- 嚴 琴 詩緝三十六卷
- 黃 震 新刻讀詩一得一卷
- 王 柏 詩疑二卷
- 馬端臨 文獻通考
- 胡 廣 詩經大全二十卷
- 何 楷 詩經世本古義二十卷
- 王夫之 詩廣傳五卷
- 陳啓源 毛詩稽古篇三十卷
- 毛奇齡 白鷺洲主客說詩一卷
- 閻百穀 毛朱詩說一卷
- 姚際恒 詩經通論十八卷，詩經論旨一卷
- 王鴻緒 欽定詩經傳說彙纂二十卷
- 崔 述 讀風偶識四卷
- 戴 震 毛鄭詩考正四卷
- 馬瑞辰 毛詩傳箋通釋三十二卷
- 陳 兮 詩毛氏傳疏三十卷
- 方玉潤 詩經原始十八卷
- 皮錫瑞 詩經通論一卷
- 王闔運 詩經補箋二十卷
- 吳闔生 詩義會通四卷
- 林義光 詩經通解三十卷
- 于省吾 雙劍訛詩經新證四卷
- 胡樸安 詩經學
- 謝无量 詩經研究
- 金公亮 詩經學新論
- 屈萬里 詩經釋義
- 屈萬里 古藉導讀
- 糜文開，裴普賢 詩經欣賞與研究初續集

- 陳應棠 毛詩訓詁新註
- 高本漢著 董同龢譯 詩經注釋
- 何定生 詩經今論
- 高葆光 詩經新評價
- 王靜之 詩經通釋
- 白川靜 詩經研究
- 李辰冬 詩經研究
- 韓 威 詩外傳十卷
- 魏 源 詩古微十七卷
- 王先謙 詩三家詩遺說考十八卷
- 陸 磡 毛詩草木鳥獸蟲魚疏二卷
- 錢 穆 讀詩經，新亞學報 五卷一期
- 車柱環 中國詩論，毛詩序
- 金學主 漢代詩研究
- 魏佩蘭 毛詩序傳違異考(大陸雜誌第三十三卷第八期)
- 于維杰 鄭玄詩譜考正(大陸雜誌第二十八卷第九期)
- 顧頽剛編 古史辨 第三冊
- 張成秋 關於詩經與詩序的幾個問題
-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 左傳，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唐書，新唐書，隋書，論語，孟子等。

A Study on the Authorship of the Prefaces in Mao-shi

by Si-joon KIM

Shi-jing is a collection of 311 songs probably composed by aristocrats and plebeians during the 500 years between early Zhou and late Chun-qiu periods. It must be the most ancient collection of songs as well as the first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in the history of China. But the term, "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is merely an invention of modern scholars. On the contrary, at least up to Qing period, it had been traditionally revered as a classic of the Confucian society, and also as a sacred book, interpreted and annotated in reference to the religious thoughts.

Shi-jing is also called Mao-shi, because the existing text of *Shi-jing* came from that of Mao version. The original texts of *Shi-jing* disappeared during Qin's "burning of books." In Han period, there appeared 4 kinds of revived versions from the four families; Qi, Lu, Han and Mao.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dynasty, former three versions were prevailing while Mao version gradually became popular in late Han period. As the Mao version became dominant, other three versions ceased to be read and gradually disappeared. In Sui period, all of the other three versions completely perished except for a fragment of Han version. This was the very reason why Mao version was inherited even to the present as the only extant text of *Shi-jing* and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version of *Shi-jing*, called Mao-shi.

In Mao-shi, there are prefaces on the heads of each songs and Mao's interpretation(傳) and Zheng-xian's annotations(箇) as well as the words of songs. The first thing we face when reading *Shi-jing* is the prefaces. Beginning with sentences of a certain form, such as "this is a poem to praise something" or "this is a poem to satire something," these prefaces play the role of introduction or guide for the readers who go about the appreciation of the poems. Therefore, readers are led by the prefaces to appreciate the poems with some preoccupations. However, we can se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original meanings of poems and the contents of the prefaces. This was the very problem which gave rise to the long controversies on the authenticity and authorship of the prefaces.

Historically, there have existed many different opinions on this question. Zheng-xian,

one of the greatest scholars in late Han period and who wrote an annotation to Mao's version of *Shi-jing*, asserted that these prefaces were written by a student of Confucius, Zi-xia. This opinion in Han period gained wide recognition among Confucian scholars. This general belief was so solid that Fan-ye of Jin dynasty, who argued that the prefaces were created by Wei-hong in his annotation to *Hou-han-shu* (the History of Late Han), received little scholarly attention.

It was not until Tang period that any positive refutations and suspicions against this general belief came into being. Many scholars of Tang period, including Han-yu made challenges to Zheng-xian's opinion, refuting that these prefaces were written by someone who was ignorant of the original meanings of the poems. From this time on, the traditional attribution of the authorship to Zi-xia began to face strong challenges, and many active discussions and explorations on the authorship of the prefaces were accordingly made. In Sung period, this question became even more controversial in the study of *Shi-jing*, and Zhu-xi even eliminated the prefaces from *Shi-jing*. From Yuan, Ming, Qing periods up to the present, there have been rising various opinions on this question, among which the following are the most remarkable:

1. Zi-xia wrote the prefaces.
2. Wei-hong wrote the prefaces.
3. The prefaces were created through the joint-work of Zi-xia and Wei-hong.
4. The prefaces were created through the joint-work of Zi-xia, Wei-hong and Mao-gong.
5. The prefaces were created by unknown Han scholars.
6. The prefaces were written by the royal historian(s).
7. The prefaces were created by people who composed songs of *Shi-jing*.
8. The prefaces were written by Confucius.
9. The prefaces were written by the scholar(s) living in seclusion at rural areas.
10. The prefaces were written by students of Mao-gong.
11. The prefaces were written by Meng-zu.

Among these opinions, our attention can be focused on two persons: Zi-xia and Wei-hong. Through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se opinions, we can find a possibility of solution on this question.

In the prefaces to *Shi-jing*, there are many citations from the books by Han people after Zi-xia. And we can see that the writer of the prefaces tried to explain the poems

in terms of the educational, political aspects without paying a due regard to its original meaning. Furthermore, these prefaces had never been mentioned in the writings of Han people, and referred to only in Wei-shu for the first time. Fan-ye wrote a chapter of the biography of Wei-hong at Wei-shu simply to emphasize the fact that the prefaces were written by him. Considering the chronological data of Zheng-xian and Wei-hong, there is a 200-year gap between these two people. We can hardly imagine that Fan-ye might have had no knowledge whatever of Zheng-xian's assertion on this question. Therefore, we can safely assume that Fan-ye's position could have been supported by some unknown evidence. If this assumption is acceptable, there may be a question as to why Zheng-xian asserted that the prefaces were written by Zi-xia.

Han was a state whose dominant ideology was the Confucianism. However, as Apocrypha and Prognostication(圖讖說) began to flourish in late Han, the annotation and interpretation of Confucian classics came to be influenced by these unorthodox theories, and this resulted in a total shaking of Confucian traditionalism. In case of *Shi-jing*, the versions of the three families, Qi, Lu and Han, were already polluted by those unorthodoxy of *Shi-jing*, in order to revive Confucian traditionalism,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Mao version of *Shi-jing*, which was found less polluted, and of the prefaces of Mao-shi created 150 years later than the Mao version by an unknown writer. But he fabricated the author of the prefaces as Zi-xia, for he was afraid that other scholars would not believe his opinion if he named Wei-hong, an unknown scholar at that time, as the author of the prefaces.

Consequently, it can be said that the prefaces of Mao's version of *Shi-jing* was not created in pre-Qin period, but created by Confucian scholars in late Han period to help to engender a renaissance of Confucian traditionalism, and there is certain gap between the original meaning of songs in *Shi-jing* and the explanations in the prefaces.

The prefaces of Mao-shi can be used as an important reference to the questions: with what attitude did pre-modern scholars study *Shi-jing*? It is difficult to find any inherent value in the prefaces, but when we approach to the literary and historical aspects of this great collection of songs, these prefaces can certainly be used as important source materials.